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영상 및 음원 자료



페르가나 계곡의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F  
FERGHANA VALLEY

Farg'ona vodiysining nomoddiy madaniy  
merosi namunalari



우즈베키스탄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  
Republican Scientific and Methodological Centre of Folk Arts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UNESCO



ichcap  
International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페르가나 계곡의  
무형문화유산**

Farg'ona vodiysining nomoddiy madaniy  
merosi namunalari

## CONTENTS

### DVD 1

#### 구전전통 및 표현

1. 알라 (Yalla)
2. 알라 (Alla)
3. 올란 (O'lan)
4. 요르-요르 (Yor-Yor)

### DVD 2

#### 공연예술

1. 카타 아술라 (Katta Ashula)
2. 라파르 (Lapar)
3. 아스키야 (Askiya)
4. 마당 곡예술(曲藝術) (Show Arts)

### DVD 3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1. 솜바락 의례 ("Shombarak" Event)
2. 라차크 의례 ("Lachak" Event)

### DVD 4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1. 자형화 축제 (Guli Arghuvon Festival)

### DVD 5

#### 전통 공예기술

1. 코칸드 (Qo'qon)
2. 리시톤 (Rishton)
3. 마르길론 (Marg'ilon)

### DVD 6

####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 일러두기

- 1 고유 명사들은 원음을 살려 표기하되, 이미 알려져 쓰이고 있거나 외래어표기법 용례로 등록된 인명이나 지명은 그 쓰임을 그대로 따랐다.  
(가령, 타슈켄트(Toshkent), 사마르칸트(Samarkand), 페르가나(Farg'ona), 코칸드(Qo'qon) 등).
- 2 우즈베크어 모음 /o', /a'는 모두 /o'로, /i'는 /i' 혹은 /i'로, 자음 /k/, /q'는 /k'로, /g/, /g'는 /g'로, /sh'는 /s'로 처리하였다.
- 3 나라를 일컬을 때는 '우즈베키스탄', 그 외 민족이나 집단을 가리킬 때는 '우즈베크'으로 일괄처리하였다.
- 4 모든 각주는 역주(譯註)이다.

※ 국문번역 솔레바 딜라프루즈(Soleeva Dilafruz), 신윤영(서울대)

※ 국문감수 장준희(한양대)

## CONTENTS

### CD 1

#### 알라 (Alia)

- 1. 알라**  
라히마혼 압두라조코바 (Rakhimakhon Abdurazoqova)
- 2. 알라**  
호지라 에르가셰바 (Khojira Ergasheva)
- 3. 알라**  
자미라 잡보로바 (Zamira Jabborova)
- 4. 알라**  
모타바르 잘리로바 (Mo'tabar Jalilova)
- 5. 알라**  
카로맛혼 마마조노바 (Karomatkhon Mamajonova)
- 6. 알라**  
마르하맛 조라예바 (Markhamat Jo'raeva)
- 7. 알라**  
코파이슨 옥보예바 (Ko'paysin Oqboyeva)
- 8. 알라**  
마이람혼 라히모바 (Mayramkhon Rakhimova)
- 9. 알라**  
무합뱃 라흐모노바 (Mukhabbat Rakhmonova)
- 10. 알라**  
나시바혼 소티볼디예바 (Nasibakhon Sotivoldieva)
- 11. 알라**  
사노바르 토라예바 (Sanobar To'rayeva)

### CD 2

#### 울란 (O'lan)

- 1. 울란**  
제비혼 압두나자로바 (Zebikhon Abdunazarova)
- 2. 요르-요르**  
무보락 아크로모바 (Muborak Akromova)와 자미라 투로포바 (Zamira Turpova)
- 3. 요르-요르**  
요콧혼 조라보예바 (Yoqutkhon Jo'raboyeva)와 엘미라 조니베크바 (Elmira Jonibekova)
- 4. 요르-요르**  
카몰라 카리모바 (Kamola Karimova)
- 5. 요르-요르**  
자밀라혼 나스릿디노바 (Jamilakhon Nasriddinova)
- 6. 울란**  
이노야트 라피코바 (Inoyat Rafiqova)
- 7. 요르-요르**  
무보락 샤리포바 (Muborak Sharipova)
- 8. 요르-요르**  
마디나혼 소티모바 (Madinakhon Sotimova)
- 9. 울란**  
우나르보이 토지보예바 (Unarboy Tojiboyeva)
- 10. 울란**  
가브하르 토지보예바 (Gavkhar Tojiboyeva)
- 11. 요르-요르**  
마틀루바 투르구노바 (Matluba Turg'unova)와 무납바르혼 조키로바 (Munavvarkhon Zokirova)
- 12. 울란**  
마흐부바 올도셰바 (Makhbuba Yo'ldosheva)와 바흐티요르 투르구논 (Bakhtiyor Turg'unov)

### CD 3

#### 라파르 (Lapar)

- 1. Oromijonim Yalla (영혼의 기쁨 알라), 알라**  
마흐무다 압두라흐모노바 (Makhmuda Abdurakhmonova)
- 2. Kho-kho Yalla (호호 알라), 알라**  
나시바 보이호노바 (Nasiba Boykhonova)
- 3. To'sma Yo'limni(내 길을 막지 마세요), 라파르**  
라일로혼 하키모바 (Laylokhon Khakimova)
- 4. Erta Bilan Turaman(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라파르**  
자르슈노스 주마보예바 (Zarshunos Jumaboyeva)
- 5. Bahorimdan O'rgilay(당신의 봄을 기뻐할게요), 라파르**  
카로맛 마마조노바 (Karomat Mamajonova)
- 6. Tog'dan Keling(산에서 내려와요), 라파르**  
마틀루바 라히모바 (Matluba Rakhimova)
- 7. Yorim Kelarmikan(나의 임이 올까나), 라파르**  
무합뱃 라흐모노바 (Mukhabbat Rakhmonova)
- 8. Qora Mayiz(검은 건포도), 라파르**  
마디나 소티모바 (Madina Sotimova)
- 9. Yondirasiz(내 열정을 불태우시는군요), 라파르**  
아노르혼 토지보예바 (Anorkhon Tojiboyeva)
- 10. Nahori Nashta(새벽의 상쾌함), 라파르**  
하오희혼 투르디예바 (Khayotkhon Turdiyeva)
- 11. O'nyang Qizlar(춤추어라 여자들아), 라파르**  
샤리파 우스모노바 (Sharifa Usmonova)

### CD 4

#### 카타 아슬라 (Katta Ashula)

- 1. Bo'ston(정원)**  
누그문존 아흐메토크(Nughmonjon Akhmedov)과 셰랄리 이소콥(Sherali Isoqov)
- 2. Yovvoyi Chorgokh(야생의 초르고흐)**  
초르고흐(Chorgokh) 그룹
- 3. Naylayin(어떡하죠?)**  
압두라시트 엘치예프(Abdurashid Elchiyev)
- 4. Vatanim(나의 조국)**  
소비르존 마트무사예프(Sobirjon Matmusayev)과 아크롬존 투르디예프(Akromjon Turdiyev)
- 5. Mayliga(아주 좋아!!)**  
나시바 니도예바 (Nasiba Nidojeva), 사노바르 라흐마토바 (Sanobar Rakhmatova),  
우미다 누랄리예바 (Umida Nuraliyeva)
- 6. Poshshopirim(하치니의 시, 나의 왕)**  
에르킨존 시르모논(Erkinjon Shirmonov)과 네맛존 시르모논(Ne'matjon Shirmonov)
- 7. Bog'aro(정원에서)**  
딜푸자 코디로바 (Difuzza Qodirova)와 오디나 요쿠보바 (Odina Yoqubova)
- 8. Yovvoyi Chorgokh(야생의 초르고흐)**  
무롯존 유수포프 (Murodjon Yusupov)

# 페르가나 계곡의 무형문화유산

수 세기에 걸쳐 민족의 가슴 속에 자리잡은, 재능있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어 대대로 전승되고 풍부하게 다듬어져온 우즈베크 무형문화유산은 민족의 정신성, 진정성, 예술·미학적 감성을 비추어주는 환한 거울과도 같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은 민족 고유의 풍습, 의례, 전통, 지식, 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독립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민족적 가치와 무형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학술적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여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고, 새로운 자료집들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우즈베크 예술 및 민속 창작의 정수를 지키고 이를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일련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과 행사, 학술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2010년 10월 7일자 “2010-2020 무형문화유산 보호·유지 및 전파·활용 국가 사업 승인에 관한 결의안”이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의 각 분야 전문가,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및 단체 활동가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들의 참여 하에 2012년 4월 페르가나 지역<sup>01</sup>(페르가나, 안디잔, 나만간 주<sup>02</sup>)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조사·기술하고 목록을 만들며 전승자 및 전수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답사단이 파견되었다. 본 답사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2003년)에 명시된 아래 다섯 개 부문에 따라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수집되었고, 소리, 영상, 사진 자료들이 마련되었다.

-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예술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 전통 공예기술

01 ‘페르가나’는 찬산산맥의 줄기로 둘러싸인 우즈베키스탄의 동부 지역으로 세 개의 주<sup>03</sup>를 포함한다. 원문 표현은 ‘Farg‘ona Vodiyasi (Ferghana Valley)’인데, ‘페르가나 분지’ 혹은 ‘페르가나 계곡’으로 지역된다. 그러나 분지나 계곡이라는 협의의 의미보다는 동부 세계의 주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므로, 여기에서는 ‘페르가나’, 혹은 ‘페르가나 지역’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구전전통 DVD 1 및 표현

**구전전통 및 표현**의 영역은 민간 구비 창작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세대를 거듭하며 구전<sup>04</sup>되어 오고 있는 신화, 전설, 장편서사시, 동화, 설화, 우화, 속담, 격언, 알라<sup>02</sup>, 빨리 말하기, 그리고 라파르<sup>03</sup>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연행<sup>05</sup> 방식, 다양한 선율 등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데, 가령 장편서사시는 돔브라<sup>04</sup>, 코브즈<sup>05</sup>, 두토르(혹은 두타르)<sup>06</sup> 반주와 함께, 또는 이야기나 즉흥시를 창작하는 방식으로 연행된다. 교육적인 성격을 띠는 동화, 설화, 우화, 속담 및 격언 역시 구전되어 내려온 것으로,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반영하고, 근면, 정직 같은 인간적 덕목들을 찬양하는 교훈적 장르이다. 라파르(lapar)는 민요가 춤을 매개로 연행되는 것이고, 알라(yalla)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다른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이다. 반면, 할파(xalfa)는 아코디언 반주로 사람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즉흥 연주를 특징으로 하는 창작 예술이다. 알라와 라파르는 타슈켄트-페르가나 지역에, 마브리기혼릭(mavrigixonlik)은 부하라 지역에 고유한 양식이며, 할파는 호레즘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알라(Yalla)**는 우즈베크 민간 창작 작품 속에 널리 퍼져 있는데, 민중의 말, 고전 및 현대시를 기반으로 춤과 함께 연행되는 노래 장르이다. 알라는 혼자서, 혹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연행자들이 도이라(doir)<sup>07</sup>나 기악 앙상블의 반주와 함께 연행한다. 알라는 대개 사랑을 주제로 하며, 매력적이면서 장난기 가득한 특성을 지닌다. 알라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주 소절을 주로 알라치<sup>08</sup> 단독으로 부르고, 후렴구를 집단적으로 돔브라 반주와 함께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Olmacha Anor(작은사과 석류)”, “Yallama Yorim(알라마, 내사랑)”, “Kho-kho Yalla(호-호 알라)”, “Qizgina(소녀)”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넓은 음역대와 구조적 형태도 볼 때 아슐라(ashula, 일종의 성악곡) 장르에 가깝다. “Yali-Yali(알리-알리)”, “Qalam Qoshligim(내사랑 검은 눈썹)”, “Jonon Bo‘laman Deb(나도 매력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Ayrilmasun(헤어지지 않기를)”, “Fig‘ondur(통곡)”과 같은 알라 고전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다. 나만간 주<sup>08</sup> 알라 그룹은 여성 알라치들이 도이라를 반주로 하여 “Katta Yalla(대수알라)” 및 “Kichik Yalla(소수알라)” (선율 및 박자가 복잡하고, 완성도가 매우 높음)의 전형들을 각종 잔치, 연회에서 수행한다. 오늘날 알라는 악곡단 공연 형식으로도 연행된다. 이번 페르가나 지역 답사를 통해 많은 연행자들의 알라를 기록하였다. 무보락혼 아크로모바(Muborakxon Akromova), 자미라혼 투로포바(Zamiraxon Turpova), 마흐무다 압두라흐모노

02 주로 여성들,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불러 주는 자장가를 말한다.  
 03 젊은 남녀가 양편으로 나누어 주고 받는 일종의 노래 게임이다.  
 04 목이 긴 두 줄의 연악기(류트lute류).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낸다.  
 05 두 줄의 연악기. 말총으로 만든 활로 쳐서 소리를 낸다.  
 06 돔브라와 유사한 두 줄의 연악기.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낸다.  
 07 둥근 형태의 단편 튜브, 양손으로 들고 손가락으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08 알라를 연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바(Mahmuda Abdurahmonova), 나시바 보이호노바(Nasiba Boyxonova), 라일로흐 하키모바(Layloxon Hakimova), 무하람 토시테미로바(Muharram Toshtemirova)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알라(Alla)** 노래는 아기를 재울 때 여성이 홀로 부르는 구비 형식 중 하나이다. 우즈벡, 위구르, 타직 민족 사이에 ‘알라’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는 이 노래는 보통 요람<sup>9)</sup>을 흔드는 속도와 박자에 맞춰서 부른다. 알라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꿈과 희망, 소망을 언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신적 경험들도 표현한다. 그래서 어떤 알라는 흐느끼는 음색을 띠기도 한다.

알라는 ‘요람 의례’<sup>10)</sup>때 요람을 들고 오는 여자들이 부르기도 한다. 이때 연행상 특징은 잔치 분위기에 걸맞게 한껏 흥을 돋우는 타악기 도이랴 반주와 함께 불린다는 점이다.

‘알라’는 ‘하나님(알라, Alloh)’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창조주)의 율타리 안에서 아이가 보호되기를 기원하고 간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알라는 만드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어머니 자신이다. 알라의 내용이나 선율은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어머니들은 삶에 대한 애정, 행복한 인생, 밝은 미래를 노래하는 새로운 내용의 알라를 부르고 있다.

알라는 역사 속에서 편성되고 변형되었으나, 그 아름다운 형태와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민간 구비 예술 창작의 표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알라를 다시 살리고, 젊은 세대에 널리 알리며, 민족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어머니가 노래할 때” 라는 전국 경연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페르가나 지역으로 파견된 답사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및 전수자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알라를 수집하였다. 모타바르 잘리로바(Mo'tabar Jalilova), 마르하맛 조라예바(Marhamat Jo'rayeva), 메흐리 압둘라예바(Mehri Abdullayeva), 자미라 잡보로바(Zamira Jabborova), 엘미라 조니베크바(E'l'mira Jonibekova), 카로맛혼 마마조노바(Karomatxon Mamajonova), 나시바 소트볼디예바(Nasiba Sotvoldiyeva)가 이들에 포함된다.

- **알라(Alla)**, 모타바르 잘리로바(Mo'tabar Jalilova, 1961, 우즈벡<sup>11)</sup>) – 페르가나 주 췌, 울트아르 구, 포울간 동쪽, 출생. 현재 포울간 문화센터장.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민요를 배움.
- **알라(Alla)**, 마르하맛 조라예바(Marhamat Jo'rayeva, 1966, 우즈벡) – 나만간 주, 나만간 구, 소르코르곤 동 출생. 현재 나만간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임. 민요를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배움.
- **알라(Alla)**, 메흐리 압둘라예바(Mehri Abdullayeva, 1965, 우즈벡) – 나만간 주, 폼 시시 출생. 나만간 주 뮤지컬 극장 소속 배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민요와 도이랴를 배움. 알라, 잔치의례요<sup>12)</sup>, 라파르 및 알라 연행자.
- **알라(Alla)**, 자미라 잡보로바(Zamira Jabborova, 1962, 우즈벡) – 페르가나 주, 요즈요브곤 구, 코라테파 동 출생. 현 요즈요브곤 문화센터장.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민요와 도이랴를 배움.
- **알라(Alla)**, 엘미라 조니베크바(E'l'mira Jonibekova, 1968, 우즈벡) – 나만간 주, 우이치 구, 소쿠 동 출생. 우이치 문화센터 예술감독. 어렸을 때 마을 여성들에게서 민요와 도이랴 연주를 배움. 제자로 쿤두즈혼 에감베르디예바(Qunduzxon Egamberdiyeva)가 있다. 다양한 민요 가창자.

- **알라(Alla)**, 카로맛혼 마마조노바(Karomatxon Mamajonova, 1949, 우즈벡) – 안디잔 주, 울룬폭 구, 밍볼록 동 출생. 현재 연금수혜자. 어렸을 때 어머니와 동네 여성들에게서 민요와 도이랴 연주를 배움.
- **알라(Alla)**, 나시바 소트볼디예바(Nasiba Sotvoldiyeva, 1962, 우즈벡) – 나만간 주, 초르톡 시 출생. 도이랴, 루뵘<sup>12)</sup>, 두투르로 연주하며 민요와 가곡을 부름.

**올란(O'lan)**은 민간 구비 창작 장르로서, 주로 여성들이 도이랴나 칠드르마(childirma)<sup>13)</sup> 연주와 함께 또는 무반주로 연행한다. 우즈벡 의례, 연회 등에서 한 쪽에는 여자들이, 반대 쪽에는 남자들이 서서 팀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대화 형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 질문-응답 식의 노래도 간혹 ‘올란’이라고 불린다. 올란에는 민중의 희망과 꿈, 슬픔과 기쁨이 표현되는데,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한 경우가 가장 많다. 모든 잔치 의례에는 각기 적합한 올란이 있다(요람 의례 올란, 결혼식 올란 등). 서정적이고 매혹적이며 후렴구가 반복되는 형태의 풍자적 올란도 널리 퍼져 있다. 올란은 “요르-요르(Yor-Yor)<sup>14)</sup>” 노래와 비슷하며, 어떤 올란의 경우 각 마디 끝 부분에 ‘요르-요르(yor-yor)’가 동일하게 반복된다(이 올란은 도이랴나 돔브라 반주와 함께 연행된다). 오늘날 라파르와 올란을 재할성화하고, 대중에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라파르 및 올란 창작 연행자들의 전국 경연 대회가 열린다.

페르가나 지역 답사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및 전수자들로부터 많은 올란들이 기록되었다. 미르자예프 하이룰로(Mirzayev Xayrullo), 미르자예바 하니파(Mirzayeva Hanifa), 라피코바 이노얏(Rafiqova Inoyat), 울도셰바 마흐부바(Yo'ldosheva Mahbuba), 투르구눅 바흐티요르(Turg'unov Baxtiyor), 압두나자로바 제비혼(Abdunazarova Zebixon) 등이 그 연행자들이다.

- **올란(O'lan)**, 미르자예프 하이룰로(Mirzayev Xayrullo, 1968,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코손소이 동 출생. 코손소이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임. 노래 부르는 학교와 친척들을 통해 배움. **미르자예바 하니파(Mirzayeva Hanifa, 1981,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코손소이 동 출생. 어렸을 때 학교에서 민요를 배움.
- **올란(O'lan)**, 라피코바 이노얏(Rafiqova Inoyat, 1945, 우즈벡) – 나만간 주, 추스트구, 발락치 동 출생. 노래 부르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배움.
- **올란(O'lan)**, 울도셰바 마흐부바(Yo'ldosheva Mahbuba, 1985,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바르지우 동 출생. 바르지우 문화센터에서 일함. 민요는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에서 배움. **투르구눅 바흐티요르(Turg'unov Baxtiyor, 1976,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발락치 동 출생. 발락치 문화센터에서 일함.
- **올란(O'lan)**, 압두나자로바 제비혼(Abdunazarova Zebixon, 1951, 우즈벡) – 나만간 주, 폼 구, 필롤 동 출생. 현재 연금수혜자. 어렸을 때 마을 여성들에게서 민요와 도이랴 연주를 배움.

**요르-요르(Yor-Yor)**는 결혼식 때 부르는 민요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즈벡, 타직, 위구르 및 투르크멘 민족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 요르-요르는 2행 혹은 4행 형태로 구성되고, 각 마디의 끝이나 간혹 중간에 “Yor-yor, Aylanaman(내사랑, 사랑스럽구나)”와 같은 말을 넣어 부른다. 보통 도이랴 반주와 함께 신부를 배웅하는 여성들이 부르는데, 페르가나 지역(페르가나, 오시, 호잔트)이나 자랍산 지역<sup>15)</sup>에서 (신부를 데리러-

09 원문에서는 두 종류의 요람, 바닥에 두는 요람(beshik)과 천정에 매다는 요람(belanchak)을 언급하고 있다.

10 ‘요람 의례’는 ‘베식토이(beshik to'y)’의 의역이다. 요람 의례는 보통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를 처음 요람에 눕히는 것을 기념하며 배우는 잔치이다. 베식(beshik)은 요람, 토이(to'y)는 잔치를 의미한다.

11 우즈벡 ‘민족’임을 의미한다.

12 손으로 튕겨서 소리 내는 현악기로 우즈벡 루뵘은 5줄이다.

13 도이랴와 같은 종류의 악기로 도이랴보다 약간 크다.

14 주로 결혼식 때 부르는 민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15 우즈베키스탄 중남부지역으로, 대표 도시에서 사마르칸트가 있다. 자랍산 산맥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중남부와 타지키스탄 서부에 걸쳐 있다.

역주) 신부집으로 이동하는 남자들이 부르기도 한다. 요르-요르에는 신부의 장점, 꿈과 희망, 기원, 축복의 메시지가 담긴다. 요르-요르의 강력한 영향력은 애잔하고 구슬픈 음조와 함께, 잔치 분위기의 쾌활함이 동시적으로 표현된다는 데에 있다. 구전 요르-요르의 영향으로 문자 문학에서도 요르-요르가 만들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페르가나, 나만간, 수르한다리아, 호레즘, 기타 지방들의 요르-요르는 각기 고유한 특징들로 구별된다. 선율이 구슬프고, 때로는 풍자적이고 장난스러우며 매력적인 요르-요르는 다양한 민족민족 양상들의 상연목록이나 우즈베크 작사, 작곡가들의 창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수행한 답사 기간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 및 전수자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요르-요르를 수집, 기록하였다. 라피코바 이노얏(Rafiqova Inoyat), 다다조노바 무슬리마(Dadajonova Muslima), 압두라흐모넵 마흐무트(Abdurahmonov Mahmud), 에르가셰바 노디라혼(Ergasheva Nodiraxon), 소티모바 마디나(Sotimova Madina)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요르-요르(Yor-Yor). 라피코바 이노얏(Rafiqova Inoyat, 1945, 우즈베크)** – 나만간 주, 추스트 구, 발락치 동 출생. 현재 연금수혜자.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노래 부르기를 배움.
- **요르-요르(Yor-Yor). 다다조노바 무슬리마(Dadajonova Muslima, 1979, 우즈베크)** – 나만간 주, 추스트 구, 크즈테파 동 출생. 추스트 문화센터 회장. 어릴 때 95세였던 할머니 마리암 올리모바(Maryam Olimova)에게서 노래 부르기와 도이라 연주를 배움. 알라, 잔치의례요법뿐만 아니라 고전 민요들도 부른다.
- **요르-요르(Yor-Yor). 압두라흐모노바 마흐무다(Abdurahmonova Mahmuda, 1959, 우즈베크)** – 나만간 주, 폼 구, 이시코빗 동 출생. 폼 문화센터에서 일함.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노래 부르기와 도이라 연주를 배움.
- **요르-요르(Yor-Yor). 에르가셰바 호지라(Ergasheva Xojira, 1958, 타직)** – 페르가나 주, 소흐 구, 칼라차 동 출생. 현재 연금수혜자. 노래 부르기와 도이라 연주를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움. 다양한 타직 및 우즈베크 민요 가창자.

민속 창작은 민족의 지혜와 예술의 산물이다. 젊은 세대를 고귀한 정신성을 지닌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고, 그들에게 민족적 가치에 담긴 신념들을 형성시키는 데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은 비할 데가 없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힘의 원천은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인류 가치에 대한 헌신, 위대한 선조로부터 후손에 전달되어 온 정신적 유산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민족적 자부심 속에 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 유산들은 조국과 가족의 신성함을 인지하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아 마음의 보배가 되었다.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공연예술 DVD 2

공연예술 분야는 민속 창작 중 음악, 춤, 곡예술(音樂) 등의 장르로 구성된다. 그 중 음악 분야는 “사시마 콤(Shashmaqom)”, “호레즘 마콤(Xorazm maqomlari)”, “타슈켄트-페르가나 마콤(Toshkent-Farg'ona maqom yo'llari)”, “타노바르(tanovar)”, “우시숙(ushshoq)”, “페루즈(feruz)”, “수보라(suvora)”, “라즈기(lazgi)”, “마브리기(mavrigi)”와 같은 부문과 알라, 울란, 알라, 라피르, 마드히야(madhiya), 테르마(terma) 및 할피(halfachilik)를 아우른다. 춤 분야는 지역별 전통춤, 1인 혹은 군무群舞, 여성 및 남성무舞, 호레즘, 부하라, 페르가나, 수르한 지역 춤 등이 포함된다. 안디잔(Andijan), 나만간(Namangan), 페르가나(Farg'ona) 주 썬을 아우르는 페르가나 지역은 이 지역 연행의 고유한 특징, 춤과 곡예술, 시적 언어가 풍부한 음악 장르, 다양한 전통악기, 노래·작사·작곡 장르, 전문 음악의 구전口傳 모범 등으로 다른 지역들과 구별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테르마, 라파르, 울란, 알라, 카타 아술라와 함께 다양한 계절 및 의례 노래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곡예술로는 줄타기, 차력, 전통 서커스, 마술, 인형극, 기타 유사 양식들이 있고, 전통 민속놀이도 포함된다.

카타 아술라(Katta Ashula, 일명 ‘쟁반노래(patnis ashula)’)는 페르가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우즈베크 전통 노래 양식이다. 보통 2~5명의 공동 가창자들이 악기 없이 (손에 쟁반이나 접시를 들고) 부른다. 대개 높은 음역대에서 폭넓은 호흡으로 부르는데 특유의 복잡한 연행방식으로 여타 장르와 구분된다. 카타 아술라는 고대 의례와 노동요, 비가歌, 애곡, 아올구 노래(ayolgu; 악기이자 노래장르), 그리고 고대 아랍-페르시아 운율학 체계에 기초한 가잘(g'azal)<sup>16</sup>의 고대적 낭송방식을 근간으로 탄생되었다. 보통 대규모 모임, 봄의 꽃 축제, 잔치 연회에서 불린다. 카타 아술라의 과거 전형들에서는 서정시, 권고형의 가잘뿐만 아니라 종교적·수피즘<sup>17</sup>적 경향의 시도 불렀다. 알리셰르 나보이(A. Navoiy), 루트피(Lutfiy), 마시랍(Mashrab), 하 지니(Xaziniy), 무키미(Muqimiy), 푸르캣(Furqat), 자브키(Zavqiy), 미스킨(Miskin) 등 시인들의 가잘 시는 카타 아술라 장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나보이(Navoiy)의 “Do'stlar(벗들이여)”, 무키미(Muqimiy)의 “Ko'p erdi(많았는지)”, “Yolg'iz(홀로)”, “Adashganman(착각했다네)” 등의 카타 아술라들이 유명하다.

카타 아술라 공연에서는 즉흥곡 방식이 널리 쓰인다. 카타 아술라 연행자는 도제 훈련을 거치고, 시적법詩作法 및 연행 전통에 토대를 두며, 넓은 음역과 고음, 전문기교를 지녀야 한다. 가창자들은 일반적으로 시詩 연의 초행을 차례로 부르고 마지막 행은 합창으로 부른다.

10세기 후반부터 카타 아술라에 새로운 성악·기악 양식, 솔로 가창자에 맞춘 유형들이 생겨났다. 이 방식은 조라혼 솔토넵(Jo'rxon Sultonov)이 만들었는데, “Ey Dilbari Jonim(아 딜바르존이여)”, “Topmadim(찾지 못했다)” 등 많은 노래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에르카코리 카리롬(Erkaqori Karimov), 투르디알리 에르가셴(Turdiali Ergashev), 마트부바 샤토름(Matbuva Sattorov), 조라혼 솔토넵(Jo'rxon Sultonov),

16 아랍어의 고전적 시형詩形. 각오를 이루는 2행 대구와 반복구로 구성된다. 주로 사랑의 아름다움, 이별의 고통 등을 주제로 한다.  
17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경향을 띤 한 종파宗派.

마무르존 우조콰(Ma'murjon Uzoqov), 볼타보이 라자보(Boltaboy Rajabov), 오리프 알리마흐수몹(Orif Alimahsumov), 팻토혼 마마달리예(Fattohxon Mamadaliyev), 조라혼 유수폼(Jo'raxon Yusupov), 함로쿨코리 토라쿨몹(Xamroqulqori To'raqulov) 등이 큰 명성을 얻었다. 현재는 할리마 주 시로바(Xalima Nosirova), 무노쥬 올지예바(Munojot Yo'ichiyeva), 이스모일 바호보(Ismoil Vaxobov) 및 이스로일 바호보(Isroil Vaxobov), 마흐무 토지보예(Mahmud Tojiboyev)와 같은 가수들이 전문적 기교를 활용해 카타 아술라를 부르고 있다.

**우즈벡 마콰(maqom)** - 우즈벡 고전 음악에서 마콰 장르는 지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원숙한 연주자, 작곡가들이 만들었고 9~10세기에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매개수단이 동원되면서 풍부해졌다. '마콰(maqom)'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자리', '장소', '단계', '등급' 등을 의미한다. 예술 분야에서 마콰는 음높이, 거대한 기악 및 성악 양식, 광대한 성악 기악의 집단적 장르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음악 창작과는 자체적인 예술적 완성도, 선율과 형태상 구조, 음높이와 박자 연쇄, 그리고 공교한 학문적-실용적 토대 등에서 차이가 난다. 마콰는 음악, 시, 무용 예술들을 담아내는 공동의 예술과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콰 예술은 마콰 작곡 및 단체들로 구성되는데, 부하라의 "샤시마콰(Shahmaqom)", "호레즘 마콰(Xorazm maqomlari)",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콰(Farg'ona-Toshkent maqomlari)"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변이형으로 우시쇼크(Ushshoq)와 이룩(Iroq) 그룹, 페르가나 수르나이<sup>18</sup> 마콰 양식, 호레즘 두토르(dutor) 마콰, "페루즈(Feruz)" 그룹, 마콰 기악 및 성악 작품들이 있다.

**샤시마콰(Shashmaqom)**은 18세기 부하라(Buxoro)에서 12개의 마콰(Duvozdahmaqom) 그룹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우즈벡-타지 민족의 음악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샤시마콰는 6개의 마콰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부즈룩(Buzruk), 로스트(Rost), 나보(Navo), 두고흐(Dugoh), 세고흐(Segoh)와 이룩(Iroq)으로 구성된다. 각 마콰는 매우 큰 규모의 모음곡 작품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악부인 무시킬랴(Mushkilot - 타스니프(tasnif), 타르제(tarje), 가르둔(gardun), 무함마스(muhammas), 사킬(saqil))과 성악부인 나스르(Nasr), 두 개의 쇼바 그룹(sho'ba)(첫 그룹은 사라호보르(saraxbor), 탈긴(talqin), 나스르(nasr), 우파르(ufar)로 중간에 멜로디가 연주되고, 두 번째 그룹은 사브트(savt) 및 모골차(mo'g'o'icha) 등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됨)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추가적 기악 및 성악 양식이 마콰 구성에 포함된다. 지도적 악기는 탄부르(tanbur)로, 탄부르의 조율<sup>19</sup>을 통해 마콰의 음높이가 형성되었다. 샤시마콰 체계의 마콰가 전부 완전히 연행될 경우, 먼저 기악부가 차례로 연주되고 나서 성악부의 쇼바로 옮겨간다. 모든 마콰의 기악과 성악 부는 오직 해당 마콰의 음높이의 토대와 예술적-미학적 효과로 특징지어진다. "샤시마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올라 있다.

페르가나 지역 답사 기간 동안 딜푸자 코디로바(Dilfuza Qodirova), 오디나 요쿠보바(Odina Yoqubova), 니그몬존 아흐메토프(Nig'monjon Axmedov), 셰랄리 이소콰(Sherali Isoqov), 에르킨존 시르모놉(Erkinjon Shirmonov) 및 네맛존 시르모놉(Nematjon Shirmonov), 그리고 라술코리 마마달리예(Rasulqori Mamadaliyev)의 이름을 딴 마콰 앙상블 단원들로부터 마콰와 카타 아술라를 기록하였다.

- **"Bo'ston(정원)** - 차르히(Charxiy)의 시. 아흐메토프 누그몬존과 이소콰 셰랄리가 부름. **아흐메토프 누그몬존(Axmedov Nug'monjon, 1968)** - 페르가나 주, 부바이다 구, 앙기코르곤 동 출생. 스승 라힘존 카몰롭(Raximjon Kamolov). 현재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임. **이소콰 셰랄리(Isoqov Sherali, 1980)** - 페르가나 주, 부바이다 구, 바치니르 동 출생. 스승 라힘존 카몰롭.
- **"Yovvoyi chorgoh(야생의 초르고흐)** - 하지니(Haziniy)의 가질. **"브르 켈순(Bir kelsun)** - 무키미(Muqimiy)의 시. "초르고흐(Chorgoh)" 그룹이 부름.
- **"Bog'aro(정원에서)"** - 추스티(Chustiy)의 시. 코디로바 딜푸자와 요쿠보바 오디

나가 부름. **코디로바 딜푸자(Qodirova Dilfuza, 1971)** - 페르가나 주, 푸르캣 구, 하이트 동 출생. 교사. 스승 마블론존 쿠르보논(Mavlonjon Qurbonov). **요쿠보바 오디나(Yoqubova Odina, 1970)** - 페르가나 주, 푸르캣 구, 장케틀리기 동 출생. 현 푸르캣 문화센터 예술감독. 스승 마블론존 쿠르보논.

- **"Mayliga(아주 좋아!!)"** - 오가히(Ogahiy)의 시. 니도예바 나시바, 라흐마토바 사노바르, 누랄리예바 울리니소가 부름. **니도예바 나시바(Nidoyeva Nasiba, 1961)** - 페르가나 주, 우치코프릭 구, 보고봇 동 출생. 현재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임. **라흐마토바 사노바르(Rahmatova Sanobar, 1956)** - 페르가나 주, 우치코프릭 구, 우르간지 동 출생. **누랄리예바 울리니소(Nuraliyeva Umriniso, 1991)** - 페르가나 주, 우치코프릭 베고봇 동 출생. 문화센터에서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임.
- **"Bog'aro(정원)** - 추스티(Chustiy)의 시. 보히둠 루스탐과 라히몹 카흐라몬이 부름. **보히둠 루스탐(Bohidov Rustam, 1967)** - 안디잔 주, 사흐르혼 구, 토시테파 동 출생. 현 사흐르혼 문화센터장. **라히몹 카흐라몬(Rahimov Gahramon, 1967)** - 안디잔 주, 사흐르혼 구, 토시테파 동 출생. 스승 오딜존 유수폼(Odiljon Yusupov) 및 팻토흐존 마마달리예(Fattohxon Mamadaliyev).
- **"Poshshopirim(하지니의 시, 나의 왕)** - 하지니(Haziniy)의 시. 시르모놉 에르킨존과 시르모놉 네맛존이 부름. **시르모놉 에르킨존(Shirmonov Erkinjon, 1947)** - 페르가나 주, 우치코프릭 구, 카타 케나가스 동 출생. 유명한 예술인이자 카타 아술라 가창자인 시르모놉(Sirmonov)의 아들. **네맛존 시르모놉(Ne'matjon Shirmonov)** - 페르가나 주, 우치코프릭 구, 카타 케나가스 동 출생. 스승은 아버지인 사브캣 시르모놉(Shavkat Shirmonov) 및 문화센터 직원들.
- **"Yovvoyi chorgoh(야생의 초르고흐)"** - 기악부. 연주자 **유수폼 미로딜(Yusupov Mirodil, 1974)** - 마르길론 출생. 현 마르길론 문화센터 예술 감독.

**라파르(Lapar)**는 민속 음악장르로, 시-공간적 서사와 선율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음역대가 좁으며, 반복구가 없고 악기 반주 없이 부른다. 라파르는 잔치 의례, 봄축제, 공동 봉사활동(하샤르; hashar)<sup>19</sup> 같은 모임에서 남녀 두 그룹이 양편으로 나뉘어서 대화 형식으로 부른다. 이때 그룹 내 여자들이 차례차례 원하는 참가자에게 '라파르를 놓으면', 남자는 이에 답해야 한다. 적절한 답을 하면 손수건, 허리끈(belbog) 같은 선물을 받게 된다. 라파르는 특정한 라파르꾼 여성들이 주재한다. 라파르에는 주로 남녀간 사랑의 감정, 꿈과 희망 등이 담겨 있으며, 가벼운 풍자와 유머도 섞여 들어간다.

말씀씨 좋은 할머니들의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노랫소리, 어머니들의 알라나 울란, 결혼식의 오르-오르, 라파르를 듣지 않고 우즈벡 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우즈벡 민족의 라파르는 독립적 민속 장르 중 하나로서, 그 역사적 뿌리가 상당히 깊고 길다.

라파르의 선율, 화음 및 양식은 연속적인 전통성에 기반하여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라파르의 역사적 뿌리는 먼 고대 시기까지 거슬러 간다. 라파르는 특정한 구성으로 연행되는데, 각각 4행의 연쇄적 대화를 기반으로 두고,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라파르는 결혼 2~3일 전, 예비 신부의 집에서 연행된다. 이 의례는 다양한 지역에서 "여자들의 저녁", "여자들의 오시(osh; 일종의 찬치밥)", "라파르의 밤", "여자들의 회합", "여자 파티", "라파르 잔치"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보통 신부의 양가(yanga)<sup>20</sup> 중 한 명이 장식된 말을 몰거나 걸어서 자기 마을과 이웃 마을을 다니며 소리꾼

19 하샤르(hashar)는 한국의 두레와 비슷하다.

20 결혼식 때 신부의 단장 및 그 밖의 일을 곁에서 도와 주는 여자를 말한다. 우리전통 혼례의 수모수모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18 나팔모양의 관악기로, 우리나라의 태평소와 같은 계통이다.



과 춤꾼, 젊은 여자들을 “라파르의 밤”에 초대한다. 젊은 남녀는 결혼 피로연이 끝난 후 라파르 연행 부문에 참여한다. 결혼식 후 여자들은 신부의 혼수감을 걸어 놓은 방에 들어간다. 여자들은 안에서, 남자들은 바깥 문 가까이 서서 라파르를 부른다.

라파르 노래는 결혼식에 즐거움, 음악성, 활기를 더할 뿐만 아니라, 이때 젊은 남녀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서로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도 한다. 라파르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한 참가자는 가벼운 놀림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에는 올란과 라파르를 되살리기 위해 라파르와 올란 연행자들의 전국 경연 대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페르가나 지역 답사 기간 동안 많은 올란들을 기록하였다.

- “Bo‘ylaringdan(나의 키에서)”, “Andijon(안디잔)”, “Oromijon Yalla(오로미존 알라)” – 압두라히모바 마흐무다(Abduraximova Mahmuda, 나만간 주<sup>21</sup>).
- “Kho-kho Yalla(호-호 알라)” – 보이호노바 나시바(Boyxonova Nasiba). 알라와 도이라.
- “Qora mag‘iz(검은 건포도)” – 소티모바 마디나(Sotimova Madina, 1979). 라파르와 도이라. 나만간 주, 푼 구 출생. 주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움.
- “O‘nyang Qizlar(춤추어라, 여자들아)” – 우스모노바 샤리파(Usmonova Sharifa, 1958). 나만간 주, 우이치 동 출생. 현재 연금수혜자. 아버지 오르톡 호피즈(Ortiq Hofiz)와 어머니에게서 노래를 배움. 도이라, 루뎀 및 두토르 연주 가능. 알라, 알라, 라파르, 요르-요르 및 켈른 살롱을 부름.
- “Ikki Oshiq(두 연인)” – 소티볼디예바 나시바(Sotivoldiyeva Nasiba, 1962) – 나만간 주, 초르톡 구 출생. 하비바 오후노바(Xabiba Ohunova)의 방식으로 부름. 도이라, 루뎀 및 두토르 연주 가능. 알라, 알라, 라파르, 요르-요르 및 켈른 살롱을 부름.
- “Tog‘dan Keling(산에서 내려와요)” – 라히모바 마틀루바(Raximova Matluba) 알라와 도이라.
- “Yondirasiz(애태우는군요)” – 토지보예바 아노르혼(Tojiboyeva Anorxon, 1960). 라파르와 도이라. 나만간 주, 밍볼록 구, 자다리오 동 출생. 현재 유치원 교사. 고모에게서 배움.
- “Bahoringdan O‘rgilay(당신의 봄을 기뻐할게요)” – 마마조노바 카로마트(Mamajonova Karomat, 1949). 안디잔 주, 울루그노르 구, 밍볼록 동 출생. 나만간 문화 고등학교 졸업.
- “Erta Bilan Turaman(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 주마바예바 자르슈노스(Jumabayeva Zarshunos, 1983). 라파르와 도이라. 나만간 주, 토라코르곤 구, 메조나 코흐나 동 출생. 현재 동아리 감독. 동네 여성, 어머니들로부터 배움.
- “O‘lan(올란)” – 옥보예바 코파이슨혼(Oqboyyeva Ko‘paysinxon, 1923). 안디잔 주, 이즈보스칸 구, 에르킨 동 출생.
- “Yorim Kelarmikan(나의 임이 올까나)” – 라흐모노바 무함밧(Rahmonova Muhabbat, 1970). 라파르와 도이라. 안디잔 주, 아사가 시 출생. 현재 교육자. 스승 고틀론 로지보예프(G‘ulomjon Ro‘ziboyev, 연주자 겸 작곡가).
- “O‘nyang Qizlar(춤추어라, 여자들아)” – 우스모노바 샤리파(Usmonova Sharifa, 1958). 라파르와 도이라. 나만간 주, 우이치 구, 초르톡 동 출생. 고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라파르의 비법을 전수받음.
- “Aylama(비교하지마)” – 투르구노바 마틀루바(1961) 및 자키로바 무납바르(1958). 라파르와 도이라. 투르구노바 마틀루바(Turg‘unova Matlyuba) – 페르가나 주, 울트야르 구, 밍돈 동 출생. 현재 교육자. 어머니들로부터 라파르를 배움. 자

키로바 무납바르(Zakirova Munavvar) – 페르가나 주, 보그도드 구, 사마르칸트 동 출생. 현재 마을주민센터(mahalla) 고문<sup>22</sup>. 라파르 연행의 비결을 어머니에게서 배움.

- “Qaddini Ursin(잘됐네)”, “Nahori Nashta(새벽의 상쾌함)” – 투르디예바 하웃혼(Turdiyeva Hayotxon, 1970). 라파르와 도이라. 페르가나 주, 요즈요분 구, 소이보이 동 출생. 현재 교사. 할머니 기요혼(G‘iyoxon)에게서 배움.
- 라흐마틀라예바 요콧혼(Raxmatullayeva Yoqutxon, 1958) – 나만간 주, 우이치 구, 마샤드 동 출생. 현재 나만간 시 민요 앙상블 회장. 스승 어머니 홀리스혼(Xolisxon) 및 나스릿딘 숄토놉(Nasriddin Sultonov).
- 샤리포바 무보락(Sharipova Muborak, 1962) – 나만간 주 출생. 현재 나만간 주립박물관 직원.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배움.

아스키야(Askiya)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오직 우즈벡 민족에게만 있는 전통 예술이다. 아스키야는 즉흥적인 풍자를 토대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시합 형태로 생성하게 진행된다. 이는 방대한 인성 지식, 상식 및 창의력, 총기, 지각력,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질문에 적절하고 딱 맞는 대답을 추리해야 하는 언어유희이자 지력 테스트이다. 군중이 모인 가운데 시합이 가능한 아스키야꾼들은 동시대인들의 삶, 일상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사건들, 부족함과 결점들을 진실되고 열린 마음으로, 애정어리면서도 날카로운 해학과 풍자로 받아들인다.

연인이 뛰어나고 농담에 능한 지략가들의 정신적 시합인 아스키야 예술은 50가지 이상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널리 보급되고, 전통화한 유형으로 간주되는 파이롭(Payrov; 연쇄)에서는 아스키야꾼이 상대방의 성향, 기질, 행동, 외모에 맞는 별명을 붙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말놀이를 통해서 암시해 주어야 한다. “Tutal” 방식의 아스키야에는 고유한 각운, 리듬, 어구가 있다. 이런 아스키야에서는 익살넘치는 웃음이 지배한다. 시 낭독이 순환되는 ‘바흐리 바이트(bahri bayt)’를 연상시키는 방식이다.<sup>21</sup>

- Mana shunaqa gaplarni aytib, meni dog‘ qoldirasiz.
- 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나를 놀리시는데,
- Mo‘ylovni olasiz-u, quloqni sog‘ qoldirasiz.
- 콧수염은 깎았는데, 귀는 살아있구만요,
- Pulini bermay yuravering, bir kuni bog‘ qoldirasiz.
- 돈내지 말고 가십쇼, 다음에 공원 <sup>22</sup> 남기실 거니까,
- Osh yeganda go‘shini tamomlab, tovoq tagida bizga yog‘ qoldirasiz.
- 오시<sup>22</sup> 먹을 때 고기는 다 먹어 치우고, 우리에게 바닥에 기름만 남기시네요,
- Bahona bilan kaklik yeb, bizga zog‘ qoldirasiz...
- 핑계 대고 자기는 핑 먹고 우리한테는 까마귀를 남기시네요, ...

‘아스키야’라는 용어는 우즈벡 민족 사이에서 대략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널리 보급되었고, 예술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18~19세기에 아스키야는 특히 페르가나와 타슈켄트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광범위한 문화 및 교육의 중심지 중 하나로 꼽히는 코칸트(Qo‘qon) 시시는 고대로부터 민간 구비 창작이 발달하였다. 코칸트 사람들은 손님을 좋아하고 친절하며, 기질이 온화하고 인간적인 동시에 예리하고 민감하며 까다롭다. 이들은 예로부터 신나고 즐거운 것, 유머, 재담 등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21 아래에 제시되는 아스키야는 일정한 각운과 리듬, 통념 등을 동일해 해석적, 풍자적 웃음을 자아낸다.  
22 북음밥과 유사한 우즈벡 전통 음식. 기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유에서 모든 시민들은 봄나들이와 축제에 음악인, 소리꾼, 아스키야꾼과 익살꾼을 꼭 참여시켰다. 유명한 아스키야꾼인 가니존 토시마툼(G'anijon Toshmatov), 라솔리리 마마달리엠편(Rasulqori Mamadaliyev), 아불코심 토이치엠편(Abulqosim To'ychiyev), 굴롬존 로지보엠편(G'ulomjon Ro'ziboyev), 하산보이 솔토놈(Hasanboy Sultonov), 마흐숨 코조콕(Mahsum Qozoqov), 조라혼 폴라툼(Jo'raxon Po'latov), 네맛존 토시마툼(Ne'matjon Toshmatov), 호탐존 테샤보엠편(Xotamjon Teshaboyev), 에르킨존 사이다호메토편(Erkinjon Saidahmedov), 압두사맛 유수푸Ꮈ(Abdusamat Yusupov), 만수르존 오후눔(Mansurjon Oxunov), 바흐드르존 쇼키롭(Bahodirjon Shokirov), 올림존 우스모눔(Olimjon Usmonov), 카흐라몬 압두발리엠편(Qahramon Abduvaliyev), 압두라흐몬 쿨마툼(Abdurahmon Qulmatov), 주마보이 후랄리엠편(Jumaboi Huraliyev), 고프리존 미르자엠편(G'ofirjon Mirzayev), 호탐존 하킴조눔(Xotamjon Hakimjonov), 마마시디 셰라엠편(Mamasidiq Alixonov), 카흐라몬 압두보히토편(Qahramon Abduvohidov) 등이 아스키야 예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이중에 네맛존 토시마툼(Ne'matjon Toshmatov)은 “명예” 훈장을 받았고, 압둘하이 마흐숨 코조콕(Abdulxay Maxsum Qozoqov), 굴롬존 로지보엠편(G'ulomjon Ro'ziboyev), 호탐존 하킴조눔(Hotamjon Hakimjonov)은 우즈베키스탄 문화 공적자로, 하산보이 솔토놈(Hasanboy Sultonov), 루스탐 함로쿨롬(Rustam Hamroqulov), 조라혼 폴라툼(Jo'raxon Po'latov), 마마시디 셰라엠편(Mamasidiq Sherayev)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배우로 초빙된다.

전문적 연행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 장르는 대대로 도제 전통에 기초하여 주로 구전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를 널리 보급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창작 학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오늘날 마르길론(Marg'ilon)에서는 마마시디 셰라엠편(Mamasidiq Sherayev)의 감독 하에, 코칸드에서는 아르롬존 안바롬(Akromjon Anvarov)의 지도 하에, 안디잔 주 호노봇 시에서는 무히딘 솔토눔(Muhiddin Sultonov), 나만간 주 노르 구에서는 고프르존 미르자엠편(G'ofurjon Mirzayev)의 감독 하에 아스키야 학교가 운영중이다.

아스키야꾼들은 연쇄적인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자존심이나 사생활을 건드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승패를 떠나 앙심을 품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제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생각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정신적 승리로 유도하는 아스키야를 우즈베크 민족이 사랑하며 듣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아스키야는 청자나 화자 모두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교양을 쌓게 해 주며, 민첩한 대응성, 즉흥성을 키워 준다. 아스키야에서는 미학적 장치들, 즉 은유, 비유, 묘사와 같은 문학적 기술, 대칭, 말놀이, 과장과 같은 표현 수단들을 만날 수 있다. 아스키야꾼은 언어의 연금술사여야 한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 고도의 지적력, 통찰력, 뛰어난 감수성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아스키야꾼은 풍부한 어휘를 확보해야 하고, 살아있는 민족 언어의 다양한 형태들, 말놀이와 농담, 속담 및 관용어들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는 1992년부터 아스키야 예술을 보존하고 재 활성화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전통적 방식으로 아스키야꾼과 익살꾼들의 전국 경연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 밖에도 안디잔 주 우즈베키스탄 국민 배우 소임 호자엠편(Soib Xo'jayev)과 압둘하이 마흐숨 코조콕(Abulhay Maxsum Qozoqov), 하산보이 솔토눔(Hasanboy Sultonov)과 같은 배우들, 페르가나 주 우즈베키스탄 국민 배우 유습존 크족 샤카르조눔(Yusufjon qiziq Shakarjonov)을 가리는 경연 대회가 조직되고 있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수행된 민속 답사에서, 우치코프릭 구의 바흐드르 쇼키롭(Bahodir Shokirov), 만수르존 오후눔(Mansurjon Oxunov), 소드존 하사눔(Sodiqjon Hasanov), 양기코르곤 구의 아르롬존 유수푸Ꮈ(Akromjon Yusupov)과 옥탐존 유수푸Ꮈ(O'ktamjon Yusupov)의 참여 속에 아스키야 연행의 전통들이 기록되었다.

**마당 곡예술(曲藝術 (Maydon tomoshalari san'ati))** - 우즈베크 민속 놀이는 아득한 옛날부터 선조들의 문화 생활에서 필수 요소로 존중받았다. 민속 문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놀이는 인간의 삶과 노동, 경험, 투쟁과 승리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수 세기 동안 민속 놀이는 자손들을 교육할 때 ‘인생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우즈베크 민족 사이에 ‘오윤(o'yun)’이라는 표현은 평범한 아이들의 오락 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경, 말타

기 및 줄타기 등 마당 곡예술까지 포함한다.

놀이 참가자들은 ‘놀이꾼(o'yinchi)’이라는 명칭 외에도, 놀이의 형태, 내용, 종류에 따라 기수騎手, 사수射手, 장사장사·선수, 뺑꾼<sup>23</sup>, 연소 곡예사, 곰 곡예사, 메추라기꾼, 괴뢰사<sup>魔師</sup><sup>24</sup>, 줄광대, 코끼리 곡예사, 폴로 경기자<sup>25</sup>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있는 민속 곡예술 및 전통 놀이 전국 페스티벌의 조직 또한 아마추어 예술을 발전시키고, 우즈베크 민속 곡예술과 전통 놀이를 활성화하며, 젊은이들이 풍부한 정신유산에 담긴 재미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르가나 지역에는 독특한 민속 전통, 관습들이 보존되어 있다. 세대를 거듭하여 완벽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줄타기 예술이 그 중 하나이다. 민속 놀이의 표본들을 보여주는 단체들, 인형을 부리는 사람이자 아스키야꾼, 라파라 및 울란 연행자, 장사, 줄광대이자 뺑꾼들의 다양한 연행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구경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재미있고 들뜬 분위기 속에 치러진다.

공연은 애호가들을 불러내기 위해 음악 소리를 퍼뜨리면서 시작된다. 단체의 대표자는 장터를 열어 공연할 놀이를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이후 어릿광대들이 관중 속으로 가서 말놀이를 열기를 돕는다. 다음으로 어린 선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때 8~10살 된 선수들이 돌을 이용해 다양한 묘기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 가령 32kg짜리 돌 들어올리기, 던지기, 자동차 끌기, 유리 바닥에 뛰어내리기, 불 고리를 묘기 부리듯 뛰어 넘기, 불 위에서 걷기와 같은 곡예들을 선보인다.

어린 선수들이 어려운 기예를 하기 전에 지도자는 손을 기도 자세로 모아, 먼저 나라와 국민에 평화, 손님들에게 평온,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영원하며 기도를 한다. 다음 순서는 뺑꾼과 광대들이다. 이들이 흥미진진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나면 이제 군중 속으로 몸집 큰 장사장사들이 나와 기예를 선보인다. 복잡하고 위험한 기예들을 수행하는 장사들은 먼저 남자 관람객 중 한 명을 무대로 초대해, 70kg짜리 돌을 들어올려 보라고 한다. 남자는 돌을 어깨 위로 올려보지만, 위로는 들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장사는 이런 돌을 4~5개 들어 올려며 재주를 보인다. 어떤 장사들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저한테 부족함 게 하나 있는데요… 뺑수가 없으면 놀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

공연 마지막에 주요 놀이 중 하나인 ‘줄타기’가 시작된다. 연정자들이 줄광대에게 무사안녕을 바라는 시작 기도를 해 준다. 줄광대는 10kg짜리 지지대를 들고, 평형을 잡을 때까지 줄 위에서 유지시킨다. 줄광대가 줄 위에서 자신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다양한 곡예 기술을 선보이면, 모든 관중의 마음에는 부러움이 일어난다. 폴랴 토시켄보엠편(Po'lat Toshkenboyev)은 “줄타기 예술은 우리 선조 아마르 티무르(Amir Temur) 시대에 발전되었는데, 그 역사가 이천오백 년에 이른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디잔 주, 마르하맛 구에서 줄타기와 차력 예술의 보존·보급에 유누살리 고지엠편 가<sup>가</sup>가 헌신해오고 있다. 유누살리 고지엠편(Yunusali G'oziyev, 1942)은 차력꾼이자 줄타기 곡예사로, 1985년 8명의 자녀와 손자로 “Andijon Samosi(안디잔의 하늘)” 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구성원에는 줄광대, 차력사 및 악단이 있다. 유누살리 고지엠편은 집 안뜰에 두 개의 줄을 설치했는데, 다양한 놀이와 줄타기 기법(sal'to, kul'bit 및 잡아당기기 등)을 보여주는 큰 줄(14m)과 작은 줄(4m)이 그것이다. 유누살리 고지엠편은 단체를 지도하는 일 외에, 정원술(庭園術)과 목공예 일에도 종사하고 있다.

우즈베크 민족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실함을 반영하는 전통·관습과 의례, 민간구비창작은 옛 문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23 뺑을 부리는 사람

24 인형극에서 인형을 부리는 사람

25 말을 타고 하는 구기 경기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DVD 3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심지 중 하나인 페르가나 지역은 고유의 관습, 의례 및 전통들로 뚜렷이 구별된다. 첫째,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중적인 아스키야, 로프(lof, 과장), 카타 아슬라, 익살·재담, 해학적 이야기, 바이트-가잘(bayt-g'ajzal), 올란, 라파라 같은 장르와 관련된 예술 텍스트들은 시적 구성의 완결성 및 원형적 수행방식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나브루즈<sup>26</sup> 축제의 3천 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암각화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지난 1920년대에 페르가나 지역에서 “틀립 축제(Lola sayli)”가 완벽히 묘사 기록되었으며, 이 지역 농민들이 “자형화(紫荊花, Gulī arg'uvon)<sup>27</sup>”, “히아신스꽃(Sumbula)<sup>28</sup>” 같은 봄 꽃 축제들을 오늘 날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의 특수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가정·일상 의례, 전통·관습에 대한 페르가나 지역주민들의 민족학적 해석, 민족, 관례들의 구성을 보아도 독특하고 다양하다. 특히 “요르-요르” 노래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부른다. “켈른 살롬(신부 인사)” 노래의 텍스트 구성과 작곡도 독특적이다. 또한 사면 의례 민속·칸타치 주술이 잘 보존되어 있고, 종교적 가치와 관련이 깊은 의례요행들이 널리 퍼져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올란 장르와 관련된 노래들은 페르가나 지역 특히 산기슭 시골에서, 주로 목축업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신부가 내렸다” 의례, 나브루즈 새해 축제, 다양한 회합, 모임에서 경험 많고 입담 좋은 남녀, 여성과 남성 올란꾼들이 논쟁 및 대화 방식으로 연행한다. 우치코프릭 구의 소딕존 하사놉(Sodiqjon Hasanov)으로부터 민간 구전 예술 창작 작품들, 특히 라파라 장르에 특장적인 작품들을 채록하였다.

이 밖에도, 코칸드 시에서 활동 중인 ‘코칸드 요르-요르’ 민속-민족 단원들의 연행에서 “Daryo Toshqin(강의 범람)”, “Akam(형)”, “Aanorxon(아노르혼)”, “Bolani Xumoriman(아이가 너무 좋아)”, “Do'qi-Do'qi(공공)”, “Poyezdingini Jildirgan(당신의 기차를 보내버린)”, “Laylijon(라일리존)”, “Onasini Suying(어머니를 사랑하라)”, “Sochim Uchi Qo'ng'roq(내 머리 끝 곱슬머리)”, “Omonyor(임의 안녕)”, “Sumalak(수말락)<sup>29</sup>” 같은 전통 노래들이 기록되었다. 또한 코칸드 사람들의 “수말락 축제” 의례에서 이 불철 음식 만들기과 관련된 관행들, 구송<sup>30</sup> 및 기도, 맥아를 술에 부을 때와 수말락을 저울 때 불리는 노래가 수집되었다. 페르가나 시에 거주하는 만주라 카몰로바(Manzura Kamolova)로부터 라파라, 요르-요르, 켈른 살롬 및 상징적 내용의 테르마 노래, 수말락 제도와 관련된 민속 전통들을, 조키로바(M. Zokirava)로부터 “Alla(알라)”, “Yor-Yor(요르-요르)”, “Yuring Ortoq(가자 친구야)”, “Yana Kuytalilik(또 불러요)”, “Mahallam(우리 동네)”, “Qoralar(흑색)”, “Sumalak(수말락)”, “Shaxmati Bor O'ynasin(체스 가진 사람 춤추요)” 노래들을 채록하였다.

26 이란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와 그 주변 국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꽃이 신년축제이다. 페르시아어로 ‘새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7 박태기나무 꽃의 다른 이름으로, 4월 중·하순 경 짙은 자주색 꽃을 화려하게 피운다.

28 3월 하순 경 풀중에 따라 푸른색, 자주색, 붉은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짙은 향기를 피우는 꽃이다.

29 나브루즈 명절에 조음에서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발아시킨 밀을 밀가루와 섞어 기름을 두르고 물을 부어가며 큰 솥에서 12~24시간 끓여 낸다.

안디잔 주, 사흐르훈 시에서 결혼식과 관련된 “솜바라(Shombarak)” 의례가 연구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솜바라”이라는 말은 원래 “솜 무보라(shom muborak; 해질녘 축복)”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집으로 오는 의례를 가리킨다. 이 의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신랑은 신부측이 보낸 옷을 입고 신랑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신부집으로 온다. 신부의 친척과 이웃들은 모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현관문에서 아이들 두세 명이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치며 뛰어 들어온다. 잠시 후 신랑과 그 친구들, 가수 및 연주자들, 남자들이 “솜 무보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들어온다. 사흐르훈에서 이 노래는 우즈베크어와 타지어로, 즉 이중언어 시<sup>31</sup> 방식으로 불린다. 또한, 현관문에서 들어온 다음 안뜰에서 “Hay Yor Do'st, Aylanaman(이봐 사랑하는 친구, 내 한바퀴 춤추리)”, “Vohay Bola(오 젊은이)” 같은 노래들도 부른다.

아사가 구<sup>32</sup>에서는 결혼식과 관련하여 “신랑이 왔다” 및 “신부가 내렸다” 의례가 연구되었다. “신랑이 왔다” 의례 수행에는 신랑 앞에 천 깔기, 신랑 앞에 두건 잡고 “길 묵기”, 신부 남동생에게 칼 선물하기, “사탕, 초콜릿 등을 머리 위에 뿌리기” 관습 등이 있다. 또한 의례에서 불리는 “Deydiyo(말하네요~)” 노래가 기록되었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신랑·신부에게 거울을 잡게 하는 《달인가? 해인가?》라는 관습이 있다. 혼인 서약 기도를 할 때에는, 신랑과 가까운 사람 한 명이 신랑옷의 어깨 부분을 매듭을 짓지 않은 흰 실로 꿰맨다. 이 관습은 안디잔 주에서 혼인 서약 기도를 할 때 신랑의 어머니, 누나, 혹은 고모가 신랑의 옷에서 뽑은 실을 바늘에 꿰어 옷의 다른 부분을 꿰매는 것인데, 이를 “실 꿰매기”라고 부른다. 이 관습은 “결혼하는 두 젊은이가 항상 다정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를, 언제나 화합하여 하나가 되기를”과 같은 좋은 바람을 담고 있다.

결혼식 당일 저녁, 신랑·신부가 치밀득<sup>30</sup>에 들어간 후, 신랑이 비단 스키타프 신부의 머리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는 관습이 있는데, 이를 “머리 쓰다듬기”라고 한다. 신부를 신랑집에 데려온 후에, 신부측에서 온 장난기 많은 할머니 한 사람이 사돈측에서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와 상징적 싸움을 벌이는 관습이 있는데, 이를 “할머니가 싸웠다”, “할머니가 넘어졌다”라고 한다. 호자오브 구<sup>33</sup>의 쿨라 동에서는 신부가 온 후에 신랑 신부 양측 여성들이 줄곧 두 편으로 나누어, 특별히 마련된 상품을 얻으려고 상징적 싸움을 하는데, 이를 “힘을 시험했다”라고 부른다.

결혼식 날 “신부가 내렸다” 의례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에 밀가루를 부어주는 관습을, 안디잔 주에서 “밀가루를 부었다”라고 한다. 아사가 시<sup>34</sup>의 킱축 동에서는 신부가 오면 시어머니가 길에 마중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는데, “며느리야 잘 살거라, 앞으로 네 길이 항상 순조롭기를, 얼굴이 활짝 피기를,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를, 좋은 빵을 굽기를!”이라며 순결함의 상징으로 며느리의 손에 밀가루를 붓는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처음 일을 시킬 때, 빵을 양<sup>35</sup> 지방 기름과 함께 섞어 요리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도 새 가정의 삶이 윤택하고 신부의 손이 항상 ‘기름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지닌다.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혼례에서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은 “얼굴이 열렸다” 의례가 수행된다. 이 의례에서 신부는 신랑측 친척들을 소개받는다. 이 의례는 여성들이 진행하는데, 이때 도이라 연주와 더불어 “켈른 살롬(신부 인사)” 노래(예를 들어, “Salomnoma”, “Chorsalom”)를 부른다. 노래의 각 4행은 특정한 개인을 향한 것으로, 가령,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머니 등이 언급된다. 그러면 신부가 인사를 올리고, 선물이 제공된다.

딸을 전송하는 의례에서 “라착(Lachak; 옥양목 스카프)” 의례가 행해진다. 친정에서 시댁으로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신랑측에서 온 양가들과 신부측 친척들이 참여한다. 이 의례에서 신부에게 “라착”, 즉 스카프를 씌우는 과정이 진행되고, 신부의 어머니와 양가들은 딸에게 선물을 준다. 이때 요르-요르, 라파라 등의 민요가 불린다. 신부가 준비를 마치고 나면 다산과 다복을 염원하며 빵 두 개가 신부 머리 위에 놓인다. 이후에 켈른 살롬 노래에 따라 신부가 인사를 한다(허리를 깊이 굽힘). 이어서 신부를 배웅하는 의례가 진행되고 “요르-요르” 노래와 함께 신부는 신랑집으로 떠나게 된다. 오늘날 페르가나 지역에서 많은 결혼 노래들이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30 신랑·신부의 혼훈방 한쪽 부분(주로 모서리)에 치는 일종의 커트.

구전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자연과 우주에 대한 DVD 4 지식과 관습

페르가나 지역은 고대 문화 중심지 중 하나로, 우즈벡 민간 구비 창작, 춤, 음악, 민간 실용 예술, 곡예술, 민속 놀이, 그리고 풍습과 의례, 전통들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페르가나 지역에는 우즈벡 민족과 함께 타지, 위구르, 키르기스, 터키, 러시아 및 기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전통과 관습뿐만 아니라 나브루즈, 메흐르존(Mehrjon)<sup>31</sup> 같은 민간 축제와 여타 의례들도 같이 기념한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진행된 학술 답사 기간에, 울트야룩 구획에 위치한 “도스티 후도(Do’sti Xudo)” 영묘에서 매년 봄 전통식으로 진행되는 “자형화(鸚鵡花) 축제”가 기록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자형화(Arg’uvongul(아르구분굴), 현지인들은 Gul Arg’uvon(굴리 아르구분)이라고 말함) 축제는 전통(음력) 세시 의례의 주가상 봄에 열린다. ‘도스티 후도’ 영묘의 능 앞에서 자라는 관목류 꽃이 피었을 때 (이 꽃은 매년 4월의 전반기에 피고, 3일 동안 유지됨) 앞서 언급한 축제가 개최된다. 이 축제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Qizil Gul(붉은 꽃)”, “Guli Surx(새싹)”, “Lola Sayli(튤립 축제)”, “Sumbula Sayli(히아신스꽃 축제)”, “Gunafsha Sayli(제비꽃 축제)”와 같은 전통적 꽃 축제 계열에 속하는 고대 세시 의례로 간주된다. 이는 고대로부터 농업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연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식물 숭배와 관련이 깊은 많은 전통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생명의 나무에 대한 신화적 세계관의 핵심에도 자연의 영원성에 대한 원시적 신앙이 깔려 있다. 가을에 잎을 떨어뜨린 나무에서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돌아나고, 것처럼 봄이 옴과 동시에 대지가 초목과 꽃으로 덮이는 것에서 조상들은 자연의 상징적인 부활의 표상을 보았다.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관련된 신화관, 식물 상징화에 기초를 둔 농업 신앙과 일련의 마술적 성격의 상징적 활동들로 이루어진 의식의 발생을 대지는 스스로 준비한 셈이다. 자형화 축제 또한 바로 이런 농업 신앙과 풍작 관념을 구현한 고대 세시 의례 중 하나이다. 자형화 축제가 “도스티 후도” 영묘에서 열리는 것도 이 의례가 소멸과 소생의 자연 숭배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민속 축제로서 행해지는 이 의례에는 주로 여성들이 참가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토크마(To’qma)’, 즉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져오는 음식들(재료들)로 ‘초즈마-찰팍(Cho’zma-Chalpak), 쇼르바(Sho’va), 오시’ 등 전통음식을 만든다. 여성들은 “도스티 후도” 묘 앞에 핀 자형화 주위를 돈다. 어린 아이나 아기가 있는 머느리들은 아이를 묘 앞에 펼쳐진 카페트 위에서 굴린다. 아흐맛 아사비(Ahmad Yassaviy)의 «Hikmat(금언(金言))», 후바이도(Huvaydo)의 가잘 같이 다양한 교훈적 내용이 담긴

시책도 이야기하기 방식으로 읽힌다. “자형화” 축제가 여성들의 지크르(zikr)<sup>32</sup> 참여로 끝나는 것도 이 의례가 고유한 고대 신앙이었음을 증명한다.

주로 추스트 구획에서 정착민들 사이에 열리는 히아신스꽃 축제는 페르가나 외의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이슬람적 세계관에 간격을 둔 이 축제는 이른 봄에 시작된다. 이슬람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인 ‘호자 압두라흐몬 이븐 아프(Xo’ja Abdurahmon ibn Avf)’의 이름을 딴 순례지에서 시작되어, 고바소이(G’ovasoy) 시내 왼편 기슭에 자리한 순불 동굴에서 끝난다. 20세기 들어 1980년대부터 이 봄 꽃 축제에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는데, 주요 축제는 5월에 진행된다. 축제 참가자들은 순례지에서 희생 제의를 하고, 꾸란을 암송한다. 다양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한다. 이른 봄 순례자들의 주축이 농민들이라면, 늦은 봄과 여름에는 기술장인 및 상인들이다. 축제 동안 순불 동굴을 순례하고 주변에 있는 히아신스꽃을 얼굴과 눈에 바른다. 이는 이슬람 이전 종교적 관념들의 잔존물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축제들은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꽃은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으로, 꽃 축제들은 꽃이 많이 피는 곳과 순례지, 묘소 주변에서 열렸다. 민속 관념에 따르면 봄 꽃의 붉은색은 인간의 피에 비유된다. 붉은꽃은 그 색을 죽은 사람들의 피에서 받은 것이다. 즉, 죽은 사람의 피를 땅이 흡수하는데, 꽃은 바로 이 붉은색을 자기에게 취하여 그들에게 제2의 생수를 부여한다는 관념이 있었다. 위의 축제들은 어머니 자연의 재생<sup>33</sup>과 연관된 것으로, 죽음과 부활의 자연 숭배에 대한 의식들을 담고 있다.

매년 8월 말 나만간 시시 휴양 공원에서 ‘꽃 축제’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당시 아마추어 화예가<sup>34</sup>들은 라디오, 지역 언론, 문화·교양 모임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집과 거리를 꽃으로 아름답게 꾸밀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나만간의 꽃의 도시로 만들자!”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만간 바부르(Bobur) 문화·휴양공원에서 “가장 좋은 꽃 공급 대회” 개최가 발표되었다. 처음 이 대회가 열리던 1961년 당시에는 16명의 화예가들이 참여하였다. 오늘날 모범적인 전통으로 자리잡은 이 축제는 8월 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며, 화예가들의 전시회가 조직되고 각종 축제 프로그램 및 사진전 등이 열린다.

31 나브루즈가 불맞이 축제라면, 메흐르존은 수확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가을 축제이다. ‘메흐르존’은 페르시아어로 사랑, 자비로움을 의미한다.

32 지크르(zikr 혹은 dhikr): 아랍어로 ‘기억’, ‘선언’, ‘간구’ 등의 뜻을 지닌 단어로,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의 수행법이자 종교적 의식이다. 대개 신의 이름이나 꾸란, 예언자 언행록 문구를 연속적으로 외우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구전전통 및 표현  
공예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전통 공예기술 DVD 5

모든 민족의 재능, 기술, 감각, 사상의 표지로서 수천 년 동안 형성되어 왔으며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의 수준까지 이른 수공예는 독립 이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1997년 우즈베키스탄 민간 실용 예술 및 수공예 장인들의 “우스토(Usto)”라는 창작 생산 연합이 만들어졌다. 공예가들은 “공예가(Hunarmand)”라는 전국 조직으로 통합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1997년 3월 31일자 “국민의 예술적 수공업 및 실용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지원 조치들에 대한 강령”은 수공업업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키고, 잊혀진 부분들을 부활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페르가나 지역 수공업은 고대로부터 발달하였으며, 그 독특한 방식으로 여타 지역들과 구별된다. 19세기에 리시톤(Rishton), 안디잔(Andijon), 구름사로이(G'urumsaroy)는 페르가나 지역의 대규모 도자기 공예의 중심지로 간주되었다. 이 지역들의 그릇 장식은 독특하며 이곳에서 만든 항아리, 주전자 역시 다른 지역의 그릇들과 다르다. “차시마 굴(Chashma Gul)”, “초르 굴(Chor Gul)”, “오프톱(Oftob)”과 같은 표준 작품들은 이 지역의 고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리시톤 도공소에서 위구르, 중국, 키르기즈 문화의 조화를 볼 수 있다.

**코칸드(Qo'qon)**는 고대부터 장인 수공업자 도시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 18~19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한국(汗國, Khanate)의 수도였던 코칸드는 고유한 역사·문화적 외관과 진귀한 건축물을 도시 내부에 형성하였다. 또한 도자기 공예, 방직, 자수, 금속 공예, 귀금속 세공, 목각, 회화 등의 전통적 직업·기술들이 발달하였다.

오늘날, 목각술 학교 설립자인 코디리존 하이다로프(Qodirjon Xaydarov)와 그의 제자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웅 압두가니 압둘라예프(Abdug'ani Abdullayev), 국민 장인 무함마달리 유누쇼프(Muhamadali Yunusov), 숙련 장인 미르자우스몬(Mirzausmon), 미르자 유누스(Mirzayunus), 하산 우마로프(Xasan Umarov), 살림존 에르가셴(Salimjon Ergashev) 등의 코칸드 장인들은 각자 스승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활동해 오고 있다. 또한 노즈르코지예프(Nozrqo'ziyev) 가족은 코칸드 회화 학파의 계승자로 간주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장인 사이다흐맛 마흐무도프(Saidahmad Mahmudov) 박사, 사민존 모이디노프(Saminjon Mo'ydinov), 그리고 누릿딘 우스모노프(Nuriddin Usmonov)은 숙련 장인으로 유명하다. 코칸드 귀금속 세공인들은 돌을 이용하여 섬세한 귀걸이, 팔찌, 발찌, 장신구, 목걸이 등을 만들었다. 오몬존 우마로프(Omonjon Umarov) 장인은 코칸드 도장(刀匠, 칼제조사) 학교를 설립하였고, 현재 그의 제자이자 아들인 하산보이 우마로프(Hasanboy Umarov)은 새로운 유형의 칼공예를 개발해오고 있다.

**리시톤(Rishton) 도예**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르가나에서도 유약을 입힌 토기 제품의 무늬는 두껍고 흐릿한 알칼리-주석 유약 위에 그려졌다. 이러한 9세기 그릇 장식 방식은 이후 또렷한 납춤 아래에 그려는 하회(下繪, sirosti) 기법에 자리를 내주었다. 10~11세기에는 페르가나 도예에서 주석 유약과 옛 장식 기법이 이용되었다. 이후 유약 위에 코발트 안료로 유사 나무 형태, 반추심장 모양의 독특한 기법으로 무늬를 그려 넣은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브로힘 코밀로프(Ibrohim Komilov), 아슈랄리 울도셴

(Ashurali Yo'ldoshev), 샤로피딘 유수포프(Sharofiddin Yusupov), 토흐르 하이다로프(Toxir Haydarov), 알리셰르 나지롭(Alisher Nazirov), 루스탐 우스모노프(Rustam Usmonov) 등의 리시톤 도예학교는 숙련장인들의 중심지로 간주되었다. 리시톤 장인들은 각자 스승의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대와 현대의 도예 비법을 ‘도제’ 전통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전수해 오고 있다. 이 도예학교에서 유수존 이스모일롭(Yusufjon Ismoilov), 미르조마즈하르 아크라모프(Mirzomazhar Akramov), 딜숏 코치코롭(Dilshod Qo'chqorov) 같은 열정적인 젊은 도공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마르길론(Marg'ilon)**은 페르가나 지역 고대 도시 중 하나이다. 마르길론에서는 고품질의 고운 비단, 광택 나는 원단이 널리 생산된다. 20세기 초 마르길론 장인들은 고급 비단 직조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마르길론의 원단 제품은 원료, 무늬, 직조 기술에 따라 10여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베카삼(beqasam), 아드라스(adras), 파린포시샤(parinposhsha), 바노라스(banoras), 하리르(harir), 쇼이(shoyi), 카노비즈(kanoviz), 야크로야(yakro'ya), 아틀라스(atlas), 혼아틀라스(xonatlas), 치타(chita), 올라차(olacha), 칼라미(kalami), 보즈(bo'z) 및 기타 종류의 옷감은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투르군보이 미르자야흐메도프(Turg'unboy Mirzaahmedov)은 마르길론 아틀라스, 아드라스, 쇼이 원단의 고대적, 현대적 종류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제자 압두나비 토시테미로프(Abdunabi Toshtemirov), 라술크르 미르자야흐메도프(Rasuljon Mirzaahmedov), 이브로힘존 솔토노프(Ibrohimjon Sultonov) 등은 마르길론 아틀라스, 아드라스 외 기타 옷감 제조의 비결을 ‘도제’ 전통에 따라 전수해 오고 있다. 마르길론 전통 모자(do'ppi)는 형태, 원단, 장식, 미학적 상징 및 다양한 자연·지리적 특징들로 차별화된다. 페르가나 서부 및 중부 지역의 형태는 네모나면서, 살짝 원뿔형을 지닌 모자가 특징이다. 2010년, 마르길론 시내 ‘사이드 아흐마드 호자 에손(Said Axmad Xo'ja Eshon) 마드라사(Madrasa<sup>33</sup>)에서 솔리존 아흐마달리예프(Solijon Ahmadaliev) 작업장이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날염<sup>34</sup> 기술을 배우고,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된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수행된 답사를 통해 이러한 장인들의 작품이 깊이 연구되었다.

- **샤로피딘 유수포프(Sharofiddin Yusupov, 1945)** – 리시톤 시 출생.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예가. 우즈베키스탄 화가 아카데미 학술위원. 도예가 2대 계승자. 도예 기술을 아버지 이소미딘 유수포프(Isomidin Yusupov)와 코밀로프(I. Komilov) 도예 장인으로부터 배움. 그는 주로 가장자리가 얇고 가운데가 깊고 넓은 접시를 만든다.
- **조키르 고프로프(Zokir G'ofurov, 1964)** – 페르가나 시 출생. 금속 공예가. 금속 공예 기술을 장인 마수드 마달리예프(Ma'sud Madaliyev)으로부터 배움. 구리 그릇, 정반, 물병, 작은 함, 찻잔 등을 만든다.
- **야흐요 압두잡보로프(Yahyo Abdujabborov, 1971)** – 마르길론 시 출생. 보석세공인. 삼대<sup>35</sup>가 보석세공인. 아버지 하미드 압두잡보로프(Hamid Abdujabborov)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음. 다중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만든다.
- **하산우마로프(Hasan Umarov, 1970)** – 코칸드 시 출생. 도장(刀匠, 칼제조사). 3세대 도장으로, 아버지 오몬 우마로프(Omon Umarov)으로부터 기술 비법을 전수받음.
- **라술크르 미르자야흐메도프(Rasul Mirzaahmedov, 1971)** – 마르길론 시 출생. 비단 직조가<sup>36</sup>의 2대 대표. 비단직조 비법을 투르군보이 미르자야흐메도프(Tursunboy Mirzaahmedov)와 마르길론 출신 장인 나비존 토시테미로프(Nabijon Toshtemirov), 무함맛존 카리롬(Muhammadjon Karimov)으로부터 배움. 전통 옷감의 대표, 베카삼, 아드라스, 바흐말, 아틀라스, 혼아틀라스를 생산한다.

33 마드라사(madrasa)는 보통 이슬람 사원 부속의 고등 교육 시설로, 이슬람 신학 외에 다양한 학문을 가르친다.

- **슈크룰로 아흐마달리예(Shukrullo Ahmadaliyev, 1968)** – 마르길론 시 출생. 천에 꽃자수를 놓음. 집안의 2세대 대표. 기술 비법을 아버지 솔리존 아흐마달리예(Solijon Ahmadaliyev)으로부터 배움. 주로, 식탁보, 기도( намаз ) 깔개, 장식된 카페트 및 베개 커버 등을 만든다.
- **자혼기르 압둘라예(Jahongir Abdullayev, 1976)** – 코칸드 시 출생. 목공 장인. 목공가( 木匠 )의 대표. 스승은 우즈베키스탄 영웅이자 국민 장인임.
- **딜무로드 예시마토티(Dilmurod Eshmatov, 1971)** – 안디잔 출생. 요람 제작 장인. 장인 가족. 요람 제작 비법을 외삼촌으로부터 배움. 12개 종류의 요람을 만들었는데, 침대와 유사한 일반 요람, 외출용 접이식 요람, 그리고 음악 소리가 나오는 요람 등이 있다.

페르가나 지역 답사에서, 장인-공예가, 도예, 회화, 귀금속 세공, 대장일, 요람 제작, 자수 등 공예의 수많은 분야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사진, 비디오 및 문헌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구전전통 및 표현  
공예예술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기술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 무형문화유산 사진앨범 DVD 6

무형문화유산의 필수적 부분인 민간 구비 창작은 지역마다 특수성, 고유함, 소박함으로 구별된다. 민간 구비 창작의 연행은 자연스러운, 즉흥성, 그리고 진정성의 특징들이 있어 매우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능성을 만든다. 각 민족이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데에는 옷, 행동, 사고방식, 생활 양식, 일련의 다양한 특징들과 더불어 전통 예술, 특히 민간 구비 전통 및 형태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민족은 민족 음악 창작, 민족 예술 활동의 구성 요소, 다른 종류의 민간 창작 (언어, 오락, 춤, 놀이, 회화 및 실용예술)과는 고유한 특징으로 구별되는 구전 음악 예술이다. 음악 민족은 오래 전부터 역사의 동반자였으며 역사의 진실된 메아리가 되어 왔다. 음악 민족에 민족의 역사, 생활 양식, 일상생활, 투쟁, 철학, 신념, 세계관, 인간의 다양한 덕목들이 반영되었다. 대중성, 구술성, 전통성, 즉흥성, 가변성, 기능성, 변이성 및 토착성 등이 음악 민족의 주요 특징으로서, 특유의 사회적인 본질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음악 민족 작품들은 생활력, 사회적인 성질 및 관념적인 본질, 그리고 특별한 문학적 특징으로 구분된다. 전형적인 창작물(민요 및 구전, 악기 양식, 호출 및 선율)은 수 세기 동안 재능있는 수많은 민족 창작자들과 연행자들이 철저히 해석하고 다듬고 완성하여 고귀한 예술의 보배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즈베크 음악 민족은 실용 및 비실용 그룹과 장르로 구성된다.

실용 민족의 전형에는 알라(alla)와 노동요, 의례요, 역사 노래 그리고 목동, 군대 및 춤을 위한 노래들이 들어간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와 장르로 구분된다. 그 중 노동요( 勞作歌 )는 다양한 노동과 생업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연행되는 농업, 목축업, 수공업 노래들로 나뉜다.

- **농업 관련 노래:** 땅을 갈 때 – “Qo’sh haydash(쟁기질)”, 파종할 때 – “Don septi(씨를 뿌린다)”, 수확할 때 – “Yozi, O’roqchi(수확기), Oblo Baraka(신의 축복)”, 밀 타작할 때 – “Ho’p mayda(자, 잘게)”, “Mayda(잘게)”
- **목축업 관련 노래:** 소, 양, 염소 젖을 짜 때 – “Ho’sh-ho’sh, Turay-turay, Chiray-chiray(휘이-휘이, 서라, 돌아라)”, 털을 재활용하거나 베를 짜기 할 때 – “O’rmak(베를), 가락, 물레 돌릴 때 – “Charx(물레)”
- **수공업 관련 노래:** 다양한 직업 및 기술과 관련해서, 자수, 전통모(do’ppi) 만들기, 두루마기(to’n) 만들기 관련 노래 – “Do’ppi(뚝프)”, “To’n(툰)”, 그 외 대장장이 노래, “Xavor-xavor(하보르-하보르)”, 요리사 노래 등.

대부분 농요( 農歌 )는 남성들이 솔로로 악기 반주없이 큰 소리로, 목축 노래는 여성들이 홀로 낮은 소리로(젓짜기) 또는 무리 지어 악기 반주 없이 부른다. 농요의 “Yorg’ichoq(맷돌)” 노래도 여성 혼자서 악기 반주 없이 무거운 낭독식 음조로 부른다.

우즈벡 의례 음악(가악 및 구송<sup>ᄇᆞᄫᆞᆫ</sup> 노래 양식)은 다양한 의례와 관련 깊은 구송들, 악기의 호출·조화로움과 선율의 구전성, 고대성, 전통성, 즉흥성의 측면에서 정신적 가치 사슬의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의례 음악은 수 세기에 걸쳐 생성한 예술적·미학적 사고의 형태 및 민속 창작의 독창적 모범으로 존재해 왔다. 의례 음악은 세시 의례, 가정의 일상 및 종교적·신앙적 음악으로 구성되며, 의례와 관련되고 의례에서 진행되는 구송-노래, 곡쾃 및 애도가 등이 포함된다.

세시 의례 노래는 전 국민의 명절인 나브루즈(Navro'z), 4계절, 음력 및 세시 의례와 관련되어 있다. 이 노래는 한 사람 혹은 집합적으로 대부분 악기 반주 없이 낭송식으로 또는 음악적인 선율에 맞추어 축제 분위기로 밝고 매력적이고 흥겨우며 서정적인 특징으로 연행된다.

잔치 의례(요람, 할레, 떠, 곁혼식) 노래는 특정 의례의 구성 요소로서, 정확한 내용의 제시, 선율의 진행과 지역적 연행 방식 등으로 구별된다. 남녀가 솔로나 단체로 도이라 반주에 따라, 또는 악기 반주 없이 부르고, 무보락(muborak), 쿠틀롭(quotlov), 요르-요르(yor-yor), 올란(o'lan) 노래 장르로 나뉜다. 의례 노래에서는 끊임없는 삶의 공동과제성이 부여된다. 지역마다 고유한 잔치의례요소<sup>ᄇᆞᄫᆞᆫ</sup>가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장례 구송은 일상에서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정적 환경인 죽음이 발생했을 때만 불린다.

- “Yig'ilar”(애도 및 장례 구송) – 여성이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악기 반주 없이 슬프고 무거운 곡조로
- “Yo'qlovlar 및 bo'zlovlar”(애도 및 추도 의례 구송) – 여성이 혼자서
- “Ovoz solish”(매장 의례 구송) –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 “Marsiya”(추모-상·장례 노래) – 가족 중 어른 또는 역사적이거나 잘 알려진 인물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남성이 홀로 반주없이 혹은 악기 반주와 함께(Siyovush marsiyasi, Mulla To'ychi marsiyasi 등)
- “Sadr 혹은 Jar”(매장 의례 구송) – 솔로-합창 형태로 동글게 모여 부름(so'z, guyanda, yor-yor, yig'ilar 및 균형적 움직임과 함께)

일상 의례 독송 “Badik”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홀로 낭독식 음조로 부른다. 종교·예배 의례 구송은 고대 신앙(사머니즘, 조로아스터교) 및 이슬람과 관련된다.

알라(Alla)는 아이들을 재우고 양육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더 정확히说是 “어머니 알라”라고 명명된다. 즉흥성과 연행자(어머니)가 가사, 가락, 연행방식을 창작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알라는 구슬픈 낭독형의 부드러운 리듬과 음악성이 가득한 자유분방한 리듬체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일부 지역에는 남성들의 알라도 널리 퍼져 있다(호레즘(Xorazm)의 “Xuvdi”, 수르한다르야(Surxondaryo)의 “Xuyollo”).

비실용 민속 장르는 주제의 범주, 선율의 구조 및 진행, 연행의 수준과 방식, 음악 내적 규칙, 연행자 구성의 독특성으로 민속 서정시 중에서 특별한 장르로 분류된다. 비실용 민속은 경험 및 감각의 진정성, 이미지의 자연스러움과 생생함, 가사와 가락의 조화, 논리적 일관성,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형태로 사람을 사로잡는다.

- **테르마(Terma)** -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노래 장르. 4행 형태로, 짧은 음역의 낭독식 선율과 부드러운 리듬으로 악기 반주 없이 부른다.
- **노래(Qo'shiq)** - 널리 보급된 대중적 장르로서, 내용의 다양성, 다면성, 노래에 적합한 서정시, 밝음, 매혹적인 성격, 부드럽고 명확한 리듬으로 차별화된다. 솔로나 앙상블로 대부분 악기 반주 속에 불린다.
- **라파르(Lapar)** - 익살스러운 내용의 노래-춤 형의 장르. 질문과 응답식으로 솔로, 듀엣, 또는 집단 대화 형태로 연행된다. 노래적인 선율에 따라 매혹적이고 흥겨운 특징으로 놀이 및 춤과 함께 악기 반주 없이 연행된다. 일부 지역에서 라파르를 “올란(o'lan)”이라고 부른다.
- **알라(Yalla)** - 널리 퍼진 노래-춤형 장르. 내용은 낭만적·서정적이고, 솔로 및 합창

형태로 악기와 춤이 결합되며, 음악적인 선율 위에 2행 대구형<sup>ᄇᆞᄫᆞᆫ</sup> 형태로 불린다.

- **아술라(Ashula)** - 서정시 노래 장르. 낭만적·서정적 주제를 가진 민속 시와 고전 시인들의 시들이 이용된다. 넓은 음악대로 발전된 서정적 성격의 선율을 통해 불린다. 독주 악기 반주와 함께 연행하며, 최고음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즈벡 고전 음악은 우즈벡 전통 문화를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부문으로, 중세 시대에 원숙한 연주자-작곡가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 창작 분야는 구비 전통으로 유지되고 다듬어져 완전한 음악 작품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우즈벡 고전 음악은 가악 및 성악으로 구성되는데, 고전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복잡하고 완벽하며 독창적인 전통을 간직한다는 점에서 다른 민속 음악과 구분된다. 고전 음악의 창작자들과 연행자들은 전문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도제식의 전문 기술 연행 학교를 거쳐 지역 음악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마콤 연행 전문학교, 장편서사시 연행 전문학교, 아술라 연행 전문학교, 연희자 전문학교 등의 특수 학교들과 함께 더욱 빛이 난다.

우즈벡 고전 음악의 각 전형들은 수 세기 동안 재능있고 숙련된 수많은 음악인들에 의해 철저히 다듬어져, 위대한 예술적 표현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전통적인 창작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전음악 예술의 온전한 연행자세대가 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타 잘롤(Ota Jalol), 오타 기요스(Ota G'iyos), 레비 보 보호놉(Levi Boboxonov), 호지 압둘라지즈 압두라술폴(Jo'ji Abdulaziz Abdurasulov), 돔라 할림 이보돔(Domla Halim Ibodov), 몰라 토이치 토시무함메돔(Mulla To'ychi Toshmuhammedov), 소디르혼 호피즈 보보사리폴(Sodirxon hofiz, Bobosharipov), 마트요콥 하라툼(Matyoqub Harratov), 마트유수프 하라툼(Mat Yusuf Harratov), 함로쿨 코리(Hamroqul Qori), 마맛부바 샷토름(Mamadbuva Sattorov), 볼타보이 호피즈 라자복(Boltaboy hofiz Rajabov), 마담달리 호피즈(Mamadali hofiz), 에르가쉬 쇼이르 주만불불 오글리(Ergash Shoir Jumanbulbul o'g'li), 폴칸 쇼이르(Po'ikan shoir), 압둘라 쇼이르(Abdulla shoir), 셰르나 바흐시(Sherna baxshi), 이슬롬 나자르 오글리(Islom Nazar o'g'li), 볼라 바흐시 압둘라렐(Bola baxshi Abdullayev), 조라혼 솔토놉(Jo'raxon Sultonov), 마무르존 우조콥(Mamurjon Uzoqov) 및 이후 그들의 제자들이 고전 음악 예술의 보물을 그들의 마콤, 서사시, 카타 아술라, 수보라와 함께 발전시켰다. 아술라와 알라, 서사시, 카타 아술라, 악기 선율 및 종류, 마콤이 생성한 구전 전통의 형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현대적인 음표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영구 존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전 아술라(ashula)와 고전 알라(yalla) – 각종 발전된 선율과 형태, 고유한 내용과 연행방식으로 구성된 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을 띠는 민속 노래 양식, 수보라(suvora), 나식(naqsh)도 들어간다(Tanovar와 그 변이형들, Abduraxmonbegi, Qalam Qoshliging, Ol xabar, Eshvoy, Surating, Dog'man, Fig'ondur 등).

카타 아술라(katta ashula) 혹은 파트니스 아술라(patnis ashula) - 페르가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장대한 노래 양식과 고유한 구전 창작 방식이다. 두 명에서 최대 다섯 명의 가장자가 악기 반주 없이 순차적으로 부른다. 주요한 특징은 즉흥성, 자유로운 방식의 가창, 가사와 가락의 균형, 그리고 가창의 화합성이다. 카타 아술라의 선율은 낭송식 음악적 형식으로, 가락의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파도를 타는 듯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높은 음역대에서 불리고 높은 최고음역(최고조)이 존재하며 가사가 명석하게 청취자들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카타 아술라의 특징이다. “Yovvoyi Maqom(야생의 마콤)”, “Yovvoyi Ashula(야생의 노래)”, “yakkaxonlik(독창)”같은 장르 구성이 있다. 카타 아술라는 2009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목록에 올랐다.

우즈벡 마콤(Maqom) - 우즈벡 고전 음악에서 마콤 장르는 지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원숙한 연주자-작곡가들이 만들었고 9~10세기에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수단들과 함께 풍성해졌다. ‘마콤(maqom)’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자리’, ‘장소’, ‘단계’, ‘등급’ 등을 의미하는데, 음악 예술에서는 음높이, 거대한 가악 및 성악 양식, 광대한 성악-기악의 집단적 장르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음악 창작과는 예술적 완성도, 선율과 형태상 구조, 음높이와 박자 연쇄, 그리고 공고한 학문적·실용적 토대 등에서 차이가 난다. 마콤은 음악, 시, 무용 예술들을 담아내는 공동의 예술적 과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콤 예술은 마콤 작품 및 단체들로 구성

되는데, “부하라 샤시마콤(Buxoro Shashmaqomi)”, “호레즘 마콤(Xorazm Maqomlari)”,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콤(Farg’ona-Toshkent Maqomlari)”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변이형들인 우시속(Ushshoq)과 이록(Iroq) 그룹, 페르가나 수르나이<sup>34</sup> 마콤 양식, 호레즘 두토르(dutor) 마콤, “페루즈(Feruz)”그룹, 마콤 기악 및 성악 작품들이 있다.

샤시마콤(Shashmaqom)은 18세기 부하라(Buxoro)에서 12개의 마콤(Duvozdah-maqom) 그룹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우즈베크-타지 민족의 음악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샤시마콤은 6개의 마콤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부즈룩(Buzruk), 로스트(Rost), 나보(Navo), 두고흐(Dugoh), 세고흐(Segoh), 이록(Iroq)으로 구성된다. 각 마콤은 매우 큰 규모의 모음곡 작품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악부인 무시킬랏(Mushkilot – 타스니프(Tasnif), 타르제(Tarje), 가르둔(Gardun), 무함마스(Muhammas), 사킬(Saqil))과 성악부인 나스르(Nasr), 두 개의 쇼바 그룹(Sho’ba)(첫 그룹은 사라흐보르(Saraxbor), 탈퀸(Talqin), 나스르(Nasr), 우파르(Ufar)로 중간에 멜로디가 연주되고, 두 번째 그룹은 사브트(Savt) 및 모골차(Mo’g’o’lcha) 같은 5개 부분으로 구성됨)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기악 및 성악 양식이 마콤 구성에 추가된다. 지도적 악기는 탄부르(tanbur)로, 탄부르의 조율(調律)을 통해 마콤의 음높이가 형성되었다. 샤시마콤 체계의 마콤이 전부 완전히 연행될 경우, 먼저 기악부가 차례로 연주되고 나서 성악부의 쇼바로 옮겨간다. 모든 마콤의 기악과 성악부는 오직 해당 마콤의 음높이의 토대와 예술적·미학적 효과로 특징지어진다. 샤시마콤은 2009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목록에 올랐다.

샤시마콤의 쇼바들을 토대로 페르가나 지역에서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콤”이 형성되었다. 이 마콤은 따로 3개, 5개 그리고 7개 부분의 기악 및 성악부로 구성된다. 광대한 기악부 중에 3개 부분으로 된 나스룰로(Nasrullo)와 나브루즈 아잠(Navro’zi Ajam), 5개 부분으로 된 초르고흐(Chorgox), 7개 부분으로 된 미스킨(Miskin)이 있다. 광대한 성악부 중에 3개 부분으로 된 나스룰로이(Nasrulloi), 5개 부분으로 된 바옛(Bayot), 바옛 셰로지(Bayot Sheroziy), 초르고흐(Chorgoh), 굴요르-샤흐노즈(Gulyor-Shahnoz), 7개 부분으로 된 두고흐-후사이니(Dugoh-Husayniy)가 있다(이들의 각 구성은 전체 체계를 번호로 표시한다). 크고 작은 그룹들로 구성된 페르가나-타슈켄트 마콤은 성악과 기악 양식이 “샤시마콤”을 구성하는 일련의 쇼바(sho’ba), 쇼홉차(Shohobcha) 및 기타 그룹들과 유사하다(이들의 선율 움직임, 형태, 박자가 비슷함). 연행의 특징이 특수한데, 음악적 방언으로 차별화된다.

곡예술(曲藝術)은 고대로부터 발전되어온 것으로, 인형극, 줄타기, 악살·재담, 광대극이 포함된다. 각각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곡예술은 과거 전 민족적 명절이나 민간 볼 축제 때 광장에서 공연되었다. 인형극 예술은 페르가나 지역, 호레즘, 부하라, 사마르칸트에서 널리 퍼진 것으로, 주로 2가지의 방식, 즉 “초드르 자울(Chodir Jamol, 손인형 이용)”과 “초드르 하욘(Chodir Hayol, 줄인형 이용)”로 공연했다. 100여 개의 인형들이 다양한 이미지(민족 영웅, 풍자적 인물, 악살꾼, 광대, 동물, 평범한 사람)를 나타내었다. 줄타기 예술은 널리 보급되었고 줄 위에서 다양한 공연을 보인다는 점이 특별하다. 줄타기 선수들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예술과 기교들을 보여준다.

수 세기의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 민간 실용 예술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예술적 이미지들의 체계이다. 원시 공동체의 땅에서 탄생된 이 예술은 인간의 삶의 열정을 반영한 상태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예술성이 발견되었고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서 고전 예술의 수준으로까지 진보하였다. 민간 실용 예술은 오늘날 20개 이상의 종류로 된 예술적 수공예를 형성하는 고유의 예술 창작으로서, 견고한 예술적 전통이 그 뿌리를 구성한다. 페르가나 지역에서 수행된 담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무형문화유산의 표본들과 이의 전송 및 전수자들에게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하였다.

34 수르나이(surnay): 나팔모양의 관악기로, 우리나라의 태평소와 같은 계통이다.



알라(Alla)  
 올란(O'lan)  
 라파르(Lapar)  
 카타 아슬라(Katta Ashula)

## 알라(Alla) CD 1

우즈벡 민요와 춤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발전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완성되고,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풍부해지고 새로워졌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민요는 주로 민중들 사이에 입담이 좋고 특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연행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 슬픔, 꿈과 희망을 노래에 표현한다. 바로 이런 노래들 가운데 알라(Alla, 자장가)의 비중은 매우 크다.

알라(Alla)는 아기를 재울 때 어머니가 부르는 것이다. 알라는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라 노래의 뿌리는 튀르크족(Turkic) 고유의 것임이 많은 자료들에서 강조된 바 있다. 알라에서 어머니 특유의 관대함과 태양 같은 자애로움이 부드럽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미로운 선율 속에 표현된다. 그 선율 속에 선한 꿈과 아기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좋은 소망들이 노래가 된다.

알라는 만드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어머니 자신이다. 알라의 내용과 가락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에서 비롯된다. 노래가 불린 시대의 정신이 알라에 반영되는데, 오늘날 어머니들은 삶에 대한 애정, 행복한 삶, 밝은 미래를 찬미하며 새로운 내용의 알라를 부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센터와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원회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연구, 분류, 기록하고 목록을 만들어 전승자 및 전승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페르가나 지역으로 답사단이 파견되었다. 답사 동안 라히마혼 압두라조코바(Rahimaxon Abdurazoqova), 노디라 에르가셰바(Nodira Ergasheva), 자미라 잡보로바(Zamira Jabborova), 모타바르 잘릴로바(Mo'tabar Jalilova), 노디라 우마로바(Nodira Umarova), 쇼이라 우스모노바(Shoira Usmonova), 카로맛혼 조라예바(Karomatxon Jo'rayeva), 코파이슨 아야 옥보예바(Ko'paysin aya Oqboyeva), 마이람혼 라흐모노바(Mayramxon Rahmonova), 무합밧 라흐모노바(Muhabbat Rahmonova), 나시바혼 소트볼디예바(Nasibaxon Sotvoldiyeva) 등이 부른 어머니의 사랑과 인간의 정신적 경험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표현된 알라 노래 중 몇몇 표본들이 기록되었다.

### 알라 (Alla)

알라를 불러줄게 사랑스러운 아가야  
 귀를 기울여보렴, 알라  
 달콤한 알라를 듣고 천천히  
 쉬거라, 알라  
 달콤한 알라를 듣고 조용히  
 잠들거라, 알라  
 너의 미래는 밝단다  
 우리 귀여운 아가, 알라 -  
 나의 행복을 위해 자라다오

지켜볼게 내 눈으로, 알라  
 너의 얼굴에 떨어진 물방울에  
 놀라지 말아라, 알라 -  
 나처럼 불쌍하게 떨어지지 말아라  
 가랑잎이 되지 마, 알라

### 알라 (Alla)

알라, 알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알라 -  
 내가 알라를 부르면, 휴식을 취하거라  
 춤추어라 나의 어린 양 알라 - 알라  
 알라를 내가 부르면, 휴식을 취하거라  
 귀여운 우리 아가, 알라 - 알라  
 저 멀리 폭포 소리가  
 너의 귀에까지 가닿기를, 알라 - 알라  
 내 심장의 한 부분인  
 알라,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야  
 내 온몸으로  
 알라를 불러줄게  
 춤추어라 귀여운 아가 알라 - 알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알라 - 알라

### 알라 (Alla)

1. 알라	02'31"
라히마혼 압두라조코바 (Rakhimakhon Abdurazoqova)	
2. 알라	01'37"
호지라 에르가셰바 (Khojira Ergasheva)	
3. 알라	04'10"
자미라 잡보로바 (Zamira Jabborova)	
4. 알라	03'05"
모타바르 잘릴로바 (Mo'tabar Jalilova)	
5. 알라	03'56"
카로맛혼 마마조노바 (Karomatkhon Mamajonova)	
6. 알라	02'25"
마크하트 조라예바 (Markhamat Jo'rayeva)	
7. 알라	00'52"
코파이슨 옥보예바 (Ko'paysin Oqboyeva)	
8. 알라	04'46"
마이람혼 라히모바 (Mayramkhon Rakhimova)	
9. 알라	02'17"
무합밧 라흐모노바 (Muhabbat Rakhmonova)	
10. 알라	03'03"
나시바혼 소트볼디예바 (Nasibaxon Sotivoldiyeva)	
11. 알라	01'54"
사노바르 토라예바 (Sanobar To'rayeva)	

알라(Alla)  
 올란(O'lan)  
 라파르(Lapar)  
 카타 아슬라(Katta Ashula)

## 올란(O'lan) CD 2

민요는 경험과 감정의 진실됨, 이미지의 자연스러움과 생생함, 가사와 가락의 조화로움, 논리적 일관성, 간결한 형태 등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바로 이러한 민요 중 하나가 결혼식과 축제에서 주로 악기 없이 불리는 '올란'이다. 올란에서는 풍자, 사랑의 열정, 젊음의 지गत은 장난 등이 극히 진실되게, 활기찬 기운 속에 불린다. 군중 앞에서 올란을 부를 줄 아는 것은 고유한 능력, 연행(演行) 기술을 요구한다.

올란(O'lan) 노래는 젊은이들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안목있고, 소박하며 관대하고, 신의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데에 특히 큰 중요성을 지닌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센터, 그리고 유네스코 우즈베키스탄 국가위원회 협력으로 무형문화유산물을 연구하고, 분류 및 목록 작업을 하고, 유산 전승자 및 전수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페르가나 지역에서 수행된 답사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와 전수자들로부터 많은 올란들이 기록되었다. 하이룰로 미르자예프(Xayrullo Mirzayev), 하니파 미르자예바(Hanifa Mirzayeva), 이노얏 라피코바(Inoyat Rafiqova), 마흐부바 울도셰바(Mahbuba Yo'ldosheva), 바흐티요르 투르구눔(Baxtiyor Turg'unov), 제비혼 압두나자로바(Zebixon Abdunazarova), 코파이슨 아야 옥보예바(Ko'paysin aya Oqboyeva), 코지혼 시디코바(Qo'zixon Siddiqova) 등이 이들에 속한다.

- **올란(O'lan). 하이룰로 미르자예프 (Xayrullo Mirzayev, 1968,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코손소이 동 출생. 코손소이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임. 노래 부르기를 학교에서, 그리고 친척들에게서 배움. **하니파 미르자예바(Hanifa Mirzayeva, 1981,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코손소이 동 출생. 노래 부르기를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움.
- **올란(O'lan). 이노얏 라피코바 (Inoyat Rafiqova, 1945, 우즈벡)** - 나만간 주, 추스트 구, 발락치 동 출생. 노래 부르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배움.
- **올란(O'lan). 마흐부바 울도셰바(Mahbuba Yo'ldosheva, 1985,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바르지우 동 출생. 바르지우 문화센터에서 일함. 예술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노래 부르기를 배움. **바흐티요르 투르구눔 (Baxtiyor Turg'unov, 1976, 우즈벡)** - 나만간 주, 코손소이 구, 발락치 동 출생. 발락치 문화센터에서 일함. 예술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노래 부르기를 배움.
- **올란(O'lan). 제비혼 압두나자로바 (Zebixon Abdunazarova, 1951, 우즈벡)** - 나만간 주, 푼 구, 필롤 동 출생. 현재 연구수혜자. 어렸을 때 동네 여성들에게서 민요와 도이라 연주를 배움.

### 솔톤(Sulton) (올란)

**남자** - 요르-요르와 같이 올란을 가락에 실어볼까나  
 말을 몰아 당신 뒤를 쫓아가겠소  
 내가 잡으면 양치기 소녀여 너무 부끄러워 마오, 오  
 가늘디 가는 당신의 허리 안아 버릴라오

**여자** - 흥, 나한테 못오고 밭길에서 미끄러져 버려라  
 양치기 총각, 사막에 남겨져 버려라.  
 흥, 끝없는 초원에서 당신이 이리저리 헤맬 때  
 늑대들이 당신 다리를 차고 가버려라.

**남자** - 나는 일언중천금 두려움 모르는 남자요, 내 당신한테 한마디 하리  
 당신 손에 다발다발 꽃을 쥐어주겠소  
 당신 아버지를 설득해서 당신이 받아들이게 하겠소  
 결혼식 하고 안디잔으로 데려가겠소

**여자** - 흥, 안디잔 양치기 총각님, 인병히 가세요  
 당신 마을에서 예쁜 여자 찾으세요  
 내 길에 웅강한 남자를 쫓아내어  
 그러나 당신은 이나 잡는 게 낫겠어요.

요르-요르(Yor-Yor)는 딸을 떠나보내는 날 밤에 불리는 노래들 중 하나이다. 이 노래는 그 음악성, 길게 늘어진 어조, 다수의 가창, 후렴, 심중 심리, 풍부한 서정적 감성 등으로 차별화된다. '요르-요르' 노래의 내용은 주로 딸을 키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사, 희망, 시집가는 딸이 가진 찬송할만한 아름다움과 재봉사로서의 능력, 그리고 딸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조언, 선한 소망들로 구성된다.

### 요르-요르(Yor-Yor)

하아-하이 올란 마음의 올란,  
 결혼식이구나 오늘이, 요르-요르 - 결혼식이야 오늘이.  
 친구가 왔다네, 적은 떠난다네 -  
 오늘 낮에 요르-요르 - 오늘 낮에.  
 가거라, 가 내 동생, 가거라 동생아 -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요르-요르 - 건강하게 지내  
 부모님이 - 남았으니 -  
 연락해야 한다 요르-요르 - 연락해야 해.  
 나는 아버지 집에서 - 손님이었구나,  
 요르-요르 - 손님이었어  
 금 지붕 위에서 - 놀고는 했었지  
 요르-요르 놀고는 했었지  
 금 지붕 위에서 - 미끄러졌었지 떨어졌었지  
 요르-요르 - 미끄러졌었지 떨어졌었지  
 손에 가위를 잡으면 바흐말 천을 잘랐어,  
 손에 가위를 잡으면 바흐말 천을 잘랐지.  
 강에 돌 던지지 말아요 -, 가라앉아오 떠나오  
 요르-요르 - 가라앉아오 떠나오.  
 멀리 딸을 주지 말아요 -  
 데리고 가버립니다 요르-요르 - 데리고 가버려요

멀리 보낸 딸의,  
 얼굴이 노랗네요, 요르-요르 - 얼굴빛이 노래요,  
 눈에서 흐른 눈물아- 운하 같구나.  
 요르-요르 - 운하같다고 하지 말아라,  
 구리 창살 요르-요르 - 쇠창살 같구나.  
 모든 고통에 순응하겠지, 불쌍한 딸,  
 요르-요르 - 가여운 딸.

**올란 (O'lan)**

- |                                       |        |
|---------------------------------------|--------|
| <b>1. 올란</b>                          | 05'19" |
| 제비흔 압두나자로바 (Zebikhon Abdunazarova)    |        |
| <b>2. 요르-요르</b>                       | 03'36" |
| 무보락 아크로모바 (Muborak Akromova)          |        |
| 자미라 투로포바 (Zamira Turo pova)           |        |
| <b>3. 요르-요르</b>                       | 02'43" |
| 요쿿흔 조라보예바 (Yoqutkhon Jo'raboyeva)     |        |
| 엘미라 조니베코바 (Elmira Jonibekova)         |        |
| <b>4. 요르-요르</b>                       | 02'24" |
| 카몰라 카리모바 (Kamola Karimova)            |        |
| <b>5. 요르-요르</b>                       | 06'32" |
| 자밀라흔 나스리딘노바 (Jamilakhon Nasriddinova) |        |
| <b>6. 올란</b>                          | 03'44" |
| 이노야트 라피코바 (Inoyat Rafiqova)           |        |
| <b>7. 요르-요르</b>                       | 06'05" |
| 무보락 샤리포바 (Muborak Sharipova)          |        |
| <b>8. 요르-요르</b>                       | 02'30" |
| 마디나흔 소티모바 (Madinakhon Sotimova)       |        |
| <b>9. 올란</b>                          | 02'08" |
| 우나르보이 토지보예프 (Unarboy Tojiboyev)       |        |
| <b>10. 올란</b>                         | 02'39" |
| 가브하르 토지보예바 (Gavkhar Tojiboyeva)       |        |
| <b>11. 요르-요르</b>                      | 01'24" |
| 마틀루바 투르구노바 (Matluba Turg'unova)       |        |
| 무납바르흔 조키로바 (Munavvarkhon Zokirova)    |        |
| <b>12. 올란</b>                         | 02'01" |
| 마흐부바 율도셰바 (Makhbuba Yuldosheva)       |        |
| 바흐티요르 투르구논 (Bakhtiyor Turg'unov)      |        |

알라(Alla, 자장가)  
 올란(O'lan)  
 라파르(Lapar)  
 카타 아술라(Katta Ashula)

**라파르(Lapar) CD 3**

민속 창작의 고대 장르 중 하나인 라파르 공연예술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라파르 노래는 유명한 예술인들에 의해 명절, 민속 축제, 그리고 결혼식 날 저녁 신부집에서 진행되는 "여자들의 저녁", "여자들의 파티", "라파르의 밤"이라고 불리는 연회에서 연행되었다. 여자와 남자들이 양편으로 나란히 서서, 낭만적인 가잘-바이트(g'azal-bayt)를 부른다.

라파르 노래를 통해 남녀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맹세하며 가슴 속 한뼘을 음악 없이, 특정한 음조로 노래하였다. 만일 라파르를 부르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들게되면, 노래를 부르다 말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보통 꽃을 건네고, 여자는 조각보, 손수건, 향수, 등을 선물하였다.

라파르에서는 자주 농담, 익살, 조롱, 풍자, 은유, 비꼬, 희롱, 신남, 번뇌, 극히 아름답고 깊은, 복잡한 정신적 경험, 감정들이 흥겨운 음악적 시행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민중들의 시회가 얼마나 세련되고 풍부한지를 보여준다. 라파르에서는 인간 영혼의 다양한 움직임, 아름다운 가치들, 선한 생각들이 예술적이고 다채로운 빛깔 속에 효과적으로 묘사되어 불린다.

라파르는 기본적으로 4행으로 구성되는데, 양편으로 나누어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점에서 올란(o'lan)과 비슷하지만, 사상적·예술적 특징, 묘사 대상, 노래되는 삶의 양식, 생생한 생각의 표현 정도 등으로 구별된다. 유명한 예술가 루트피호님 사림소코바(Lutfixonim Sarimsoqova), 타마라호님(Tamaraxonim), 리자호님 페트로소바(Lizaxonim Petrosova), 가브하르 라히모바(Gavhar Rahimova), 오이흔 요쿠보바(Oyxon Qoqubova), 굴숏 오타보예바(Gulshod Otaboyeva), 토흐타혼 나자로바(To'xtaxon Nazarova), 쿤두즈흔 에감베르디예바(Qunduzxon Egamberdiyeva) 등은 라파르 공연 예술을 세계적으로 알렸다.

오늘날에는 라파르 및 올란 노래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산하 국립민속예술과 학연구센터는 라파르·올란을 수집하고, 민요 연행자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창작물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라파르·올란 연행자들의 전국 대회·축제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춤어라 (O'ynang)**

춤어라 여자들이여 춤추어라, 내가 보러 왔다네,  
 당신들과 황금시간을 보내러 왔다네.  
 춤추어라, 나의 사랑, 춤추어라, 내가 보러 왔다네,  
 당신들과 황금시간을 보내려고 왔다네.  
 나만간 개울에 짓지마라 건물을,  
 남의 입을 취하지마라 임대료.  
 남의 입을 취하면 임대료,  
 못 놀 것이다, 웃지 못할 것이다 불안해서

춤추어라 나의 사랑, 춤추어라, 내가 보러 왔다네.  
 장미가 말하네 피겠어요 라고  
 미인들의 관자놀이에 꽂히겠어요 라고  
 미인들의 관자놀이에 꽂혀서,  
 배신자들 다리에 밟히겠어요 라고  
 아아, 춤추어라 여자들여, 춤추어라, 내가 보러 왔다네,  
 당신들과 황금시간을 보내러 왔다네.  
 춤추어라, 나의 사랑 춤추어라, 내가 보러 왔다네,  
 당신들과 황금시간을 보내려고 왔다네.

알라(Alla)  
 올란(O'lan)  
 라파르(Lapar)  
 카타 아슬라(Katta Ashula)

## 카타 아슬라<sup>CD 4</sup> (Katta Ashula)

카타 아슬라(장대한 노래) 혹은 파트니스 아슬라(쟁반 노래) - 페르가나 지역 특유의 장대한 노래 양식이자 고유한 연행 방식. 두 명에서 최대 다섯 명의 가창자가 악기 반주 없이 순차적으로 부른다. 주요 특징은 즉흥성, 가창의 화합성, 높은 음역에서 폭넓은 호흡으로 부르기, 자유로운 방식으로 부르기, 가사와 가락의 조화 등이다. 높은 음역대에서 불린다는 점, 높은 최고음역(최고조)의 존재, 가사가 청취자들에게 부드럽게 전달되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카타 아슬라의 특징으로서, "Yovvoyi Maqom(아쟁의 마름)", "Yovvoyi Ashula(아쟁의 노래)", "Yakkaxonlik(독창)" 등의 장르가 있다. 카타 아슬라는 고대 의례와 노동요, 비가戀歌, 애곡哀歌, 아울구 노래(ayolg'u; 악기이자 노래장르), 그리고 고대 아랍-페르시아 운율학 체계에 기초한 가잘(g'azal)의 고대적 낭송방식을 근간으로 탄생했다. 카타 아슬라의 과거 전형들에서는 서정시, 권고조의 가잘과 함께 종교적, 수피즘(Sufism)적 경향의 시들도 불렀다. 알리셰리 나보이(A. Navoiy), 루트피(Lutfiy), 마시랍(Mashrab), 하지니(Xaziniy), 무키미(Muqimiy), 푸르캣(Furqat), 자브키(Zavqiy), 미스킨(Miskin) 등의 가잘은 카타 아슬라 장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카타 아슬라는 2009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목록에 올랐다. 카타 아슬라 연행과 관련하여 에르카코리 카리몹(Erkaqori Karimov), 투르디알리 에르가셴(Turdiali Ergashev), 마트부바 샷토흘(Matbuva Sattorov), 조라혼 솔토놉(Jo'raxon Sultonov), 마무르존 우조콴(Ma' murjon Uzoqov), 볼타보이 라자보프(Boltaboy Rajabov), 오리프 알리마흐수몹(Orif Alimaxumov), 팻토혼 마마달리엵(Fattohxon Mamadaliyev), 조라혼 유수몹(Jo'raxon Yusupov), 함로쿨코리 토라쿨몹(Hamroqlulqori To'raqulov) 등이 큰 명성을 얻었다. 현재는 할리마 노시로바(Xalima Nosirova), 무노쫏 울치예바(Munjojt Yo'Ichiyeva), 이스모일 바흐보프(Ismoil Vaxobov) 및 이스로일 바흐보프(Iсроil Vaxobov), 마흐뭇 토지보엵(Mahmud Tojiboyev)이 전문적 기교를 가지고 카타 아슬라를 부르고 있다.

### 우시속(Ushshoq)

나의 겹은 눈이여 오라 이제 눈동자<sup>35</sup> 같은 지식을 다오,  
 내 눈 깊숙이 눈동자 같은 안식처를 지어다오.  
 네 얼굴의 꽃을 위해 마음의 동산을 꽃밭으로 가꾸고,  
 네 몸의 새싹을 위해 마음의 꽃밭을 피어나게 하라.

### 라파르 (Lapar)

1. Oromijonim Yalla (영혼의 기쁨 알라), 알라	02'09"
마흐무다 압두라흐모노바 (Makhmuda Abdurakhmonova)	
2. Kho-kho Yalla (호호 알라), 알라	02'20"
나시바 보이호노바 (Nasiba Boykhonova)	
3. To'sma Yo'limni(내 길을 막지 마세요), 라파르	02'21"
라일로혼 하키모바 (Laylokhon Khakimova)	
4. Erta Bilan Turaman(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라파르	03'19"
자르슈노스 주마보예바 (Zarshunos Jumaboyeva)	
5. Bahorimdan O'rgilay(당신의 봄을 기뻐할게요), 라파르	01'33"
카로마트 마마조노바 (Karomat Mamajonova)	
6. Tog'dan Keling(산에서 내려와요), 라파르	02'28"
마틀루바 라히모바 (Matluba Rakhimova)	
7. Yorim Kelarmikan(나의 임이 올까나), 라파르	02'30"
무함밧 라흐모노바 (Mukhabbat Rakhmonova)	
8. Qora Mayiz(검은 건포도), 라파르	03'15"
마디나 소티모바 (Madina Sotimova)	
9. Yondirasiz(내 열정을 불태우시는군요), 라파르	02'57"
아노르혼 토지보예바 (Anorkhon Tojiboyeva)	
10. Nahori Nashta(새벽의 상쾌함), 라파르	02'43"
하웃혼 투르디예바 (Khayotkhon Turdiyeva)	
11. O'ynang Qizlar(춤추어라 여자들여), 라파르	04'13"
샤리파 우스모노바 (Sharifa Usmonova)	

35 여기서 눈동자는 인간성, 인성, 인품 등을 의미한다.

벌떡이는 심장의 피로 헨나<sup>36</sup>를 새기고,  
 너의 개<sup>37</sup>에 고통스러운 마음의 줄을 묶어라.  
 마음들이 너의 얼굴을 보고싶다고 네가 말한다면,  
 네 머리카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실로 고통스럽게 하라.<sup>38</sup>  
 낙엽의 전사들에게, 아 정원사는, 장애가 아니다  
 이 정원의 지붕에 바늘로 가시를 만들었더라면.  
 내가 그의 얼굴의 땀을 보고 죽으면, 아 나의 친구여  
 꽃물로 씻고 꽃잎으로 수의를 만들어다오.  
 나보이, 네가 열정의 회합을 마음들 사이에 조직하면,  
 그 초<sup>39</sup>가 화살촉들을 조화시키기를.

[나보이(Navoiy) 가집]<sup>39</sup>

안아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네, 사랑하는 사람들의 검은 눈은.  
 너의 입술에만 기대지 마라, 너의 눈은 정말 매력적이다.  
 천사가 살아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 보면.  
 너의 눈이 한 번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슬픔은 치유되었다.  
 감사하다 푸르캣 헤어짐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괴로워했다 너의 눈을 찾아 헤매느라.

[푸르캣(Furqat) 가집]<sup>40</sup>

나스룰로이(Nasrulloi)

오 천사같이 예쁘구나, 향긋한 그녀의 머리<sup>41</sup> 내 마음을 앗아가 버렸네,  
 천사 새들을 그 머리 고리로 가두었네

사만 말<sup>42</sup>이 불꽃처럼 빠르구나, 은혜로운 이 운명,  
 만일 하나를 살라만드라<sup>43</sup>처럼 만들었다면, 이에 하나를 사만으로 만들었다네.

사랑의 용광로에 끌려 미쳐버린 내 마음을,  
 죽음은 불길 하나하나를 불타는 울가미로 만들었다네.

내가 충정에 미쳤다고 무시당하면 보아라,  
 고통에 누구를 내게 그 사랑스러운 이가 인정하겠는가.

네 입술에 달콤한 향 내 입의 이별의 독 놀랍지 않다,  
 내게 쓴 웃음이 지나칠 때마다, 그녀는 달콤한 미소를 짓는다네.

그녀 입술의 루비를 매혹의 점으로 축복을 주었다,  
 내 마음에도 사랑으로 축복을 베풀었다네.

누군가, 사이프러스<sup>44</sup>처럼 순결하게 된다면 이 공원 안에서,  
 죽음의 운명도 그를 영원하게, 고귀하게 만든다네.

투명한 와인을 다오, 아 와인 붓는 사람이, 샤흐<sup>45</sup>가 내 마음을 겁게 만들었다,  
 마법의 술검으로 멈추고 저주를 보였다네.

나보이, 만남의 꿈을 버려라, 하나님은 너를 극도로,  
 비참하게 만들었다,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야꼴라네.

[나스룰로 가집]<sup>46</sup>

카타 아술라 (Katta Ashula)

- |  |        |
|--|--------|
| <b>1. Bo'ston(정원)</b>  | 05'49" |
| 누그몬존 아흐메토크(Nughmonjon Akhmedov)<br>셰랄리 이소콰(Sherali Isoqov)                                 |        |
| <b>2. Yovvoyi Chorgokh(야생의 초르고흐)</b>   | 09'01" |
| 초르고흐(Chorgokh) 그룹  |        |
| <b>3. Naylayin(어떡하죠?)</b>  | 04'26" |
| 압두라시 엘치예프(Abdurashid Elchiyev)   |        |
| <b>4. Vatanim(나의 조국)</b>   | 03'30" |
| 소비르존 마트무샤예프(Sobirjon Matmusayev)<br>아크롬존 투르디예프(Akromjon Turdiyev)                          |        |
| <b>5. Mayliga(아주 좋아!!)</b>   | 03'56" |
| 나시바 니도예바(Nasiba Nidoyeva)<br>사노바르 라흐마토타(Sanobar Rakhmatova)<br>우미다 누랄리에바(Umida Nuraliyeva) |        |
| <b>6. Poshshopirim(나의 왕)</b>   | 05'39" |
| 에르킨존 시르모놉(Erkinjon Shirmonov)<br>네맛존 시르모놉(Ne'matjon Shirmonov)                             |        |
| <b>7. Bog'aro(정원에서)</b>  | 04'29" |
| 딜푸자 코디로바(Difuzja Qodirova)<br>오디나 요쿠보바(Odina Yoqubova)                                     |        |
| <b>8. Yovvoyi Chorgokh(야생의 초르고흐)</b>   | 03'45" |
| 무르톤 유수포프(Murodjon Yusupov)   |        |

36 헨나(henna)는 염료 또는 안료로 쓰이는 부처꽃과의 관목이다. 잎을 따서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염색제로 쓰는데, 머리 염색, 문신 등에 사용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성들이 특히 이슬람 단식월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 손이나 발에 헨나(문신)로 갖가지 문양을 넣어 자랑한다.

37 여기서 개는 욕신, 욕망, 욕심 등을 의미한다.

38 여기서 머리카락은 현악기의 줄을 비유한 것이다. 줄을 치면 줄에 고통이 가해지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듯, 마음을 붙들어 매기 위해, 즉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욕신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39 이 가집에는 제자가 스승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다.

40 이 가집은 고통스러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41 여기서 머리는 귀 옆에 곱슬모양으로 땀에 젖은 머리(zui)이다. 우즈벡 여자들이 전통 모자를 쓰고 양 옆에 이러한 머리 모양을 만들어 예쁘게 보이게 하였다.

42 사만(Saman): 암갈색 혹은 회갈색의 빠르고 아름다운 말을 지칭한다.

43 살라만드라(Salamander 혹은 화사火蛇): 뱀이나 도마뱀의 형상을 한 서유림의 신화적·전설적 동물이다. 불 가운데를 걷고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독을 가지고 불 속에서 산다고 전해진다.

44 사이프러스(Cyprus): 키가 큰 상록수의 일종이다.

45 샤흐(Shayx 혹은 Sheikh; 샤흐, 샤): 전통적 이슬람 사회에서 지도자, 왕을 뜻한다.

46 이 가집은 하나님(Allah)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페르가나 계곡의 무형문화유산

**학술고문(顧問)** 오로잘리 토시마토클(O'rozali Toshmatov)  
루스탐 압둘라예프(Rustam Abdullayev)  
악바르 하킴(Akbar Hakimov)  
마맛쿨 조라예프(Mamatqul Jo'rayev)  
아드함 아시로프(Adham Ashirov)

**제작** 우즈베키스탄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센터  
**협력**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후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페르가나 계곡의 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OF  
FERGHANA VALLEY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UNESCO  
54, Mustaqillik Avenue, Tashkent, 100077  
Republic of Uzbekistan  
unesco@natcom.albatros.uz

우즈베키스탄 국립민속예술과학연구소  
Republican Scientific and Methodological Center of Folk A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30 Navoi Street, Tashkent, 700011  
Republic of Uzbekistan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ichcap@gmail.com / www.ichcap.org